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2007~2008년)
이슈분석 : 2008년 정책과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7-3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 10.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 구 위 원	이 태 규
연 구 위 원	김 학 수
부 연 구 위 원	김 필 현
선 임 연 구 원	김 창 배

< 제 목 차 례 >

요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3
2. 물가	17
3. 노동시장	20
4. 금융시장	23
5. 외환시장	37
6. 해외경제	43
제II장 국내경제전망(2007~2008년)	49
1. 대내외 여건	51
2.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내경제전망	59
제III장 이슈분석: 2008년 정책과제	73
1. 2008년의 특징	75
2. 새 정부 초기의 정책초점: 일자리 50만 개 창출	76
3. 정책과제	80
〈부록〉 주요 경제지표	85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7
<표 I-4> 소비	9
<표 I-5> 투자	11
<표 I-6> 품목별 수출	13
<표 I-7> 지역별 수출	14
<표 I-8> 용도별 수입	15
<표 I-9> 최근 경상수지	16
<표 I-10> 물가 추이	19
<표 I-11>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20
<표 I-12> 취업자 추이	21
<표 I-13>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2
<표 I-14>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23
<표 I-15> 주요 금리 현황	27
<표 I-16>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29
<표 I-17> 기업 자금조달 추이	30
<표 I-18> 은행의 가계대출	31
<표 I-19> 가계신용 추이	32
<표 I-20>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34
<표 I-21>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	35
<표 I-22> 주식시장 주요 지표	36
<표 I-23> 원/달러 환율	37
<표 I-24> 자본 유출입 추이	42
<표 I-25> 미국의 경제지표	44
<표 I-26> 일본의 경제지표	45
<표 I-27> EU의 주요 경제지표	46

〈표 I-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7
〈표 I-29〉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48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52
〈표 II-2〉 정부의 2008년 예산안	58
〈표 II-3〉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추이(추정)	61
〈표 II-4〉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63
〈표 II-5〉 중국, 미국, EU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비중	65
〈표 II-6〉 주요국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66
〈표 II-7〉 은행의 CD 및 은행채 수신	70
〈표 II-8〉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내경제전망	72
〈표 III-1〉 역대 정권별 주요 실물지표 추이	77
〈표 III-2〉 50만 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내수증가율 조합	79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8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10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12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15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18
<그림 I-8> 시장금리 추이	24
<그림 I-9> 최근 콜금리 추이	25
<그림 I-10> 장단기 금리 차 추이	26
<그림 I-11> 신용스프레드 추이	26
<그림 I-12>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	28
<그림 I-13> 주가지수 추이	36
<그림 I-14>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2006. 1. 4=100)	39
<그림 II-1> 소비심리지수 추이	55
<그림 II-2>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	57
<그림 II-3> OECD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64

I. 최근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4분기 성장률, 1/4분기 대비 큰 폭 상승

- 2/4분기 설비투자 호조 지속, 수출증가세 확대 등에 기인
 - 전기비: 0.9%('06년 4분기) → 0.9%('07년 1분기) → 1.8%(2분기)
 - 전년동기 대비: 4.0%('06년 4분기) → 4.0%('07년 1분기) → 5.0%(2분기)
-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하락한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상승반전

■ 7~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 확대

- 반도체 · 영상 · 음향통신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호조로 7~8월 중 두 자릿수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 시현
 - 전년동기 대비: 7.1%('07년 2분기) → 14.7%(7월) → 11.7%(8월)
-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높은 생산 증가로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 전년동기 대비: 5.6%('07년 1분기) → 6.2%(2분기) → 9.9%(7월) → 7.3%(8월)

■ 7~8월 소비 증가세 확대

- 7월과 8월 소비재 판매는 내구재 판매 호조(7월)와 비내구재 판매 증가(7월, 8월)로 인해 증가세 확대
 - 소비재 판매: 7.1%('07년 1분기) → 5.2%(2분기) → 9.8%(7월) → 7.1%(8월)

■ 7~8월 설비투자 증가세 저조

- 2/4분기 12.1% 증가했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는 반도체장비의 투자 감소와

ATM 교체투자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1.0%(7월)와 1.7%(8월)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둔화

■ 7~8월 건설투자 증가세 혼조

- 7월 국내건설기성(경상)은 공공부문의 증가와 민간부문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 대비 12.3%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공공부문의 감소와 민간부문의 증가세 둔화로 5.5% 증가

■ 수출호조세 지속

- 2007년 3/4분기 수출증가율(9.9%)이 2/4분기(14.1%)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이는 9월 수출이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동월에 비해 감소(-0.4%)한 데 기인
 - 조업일수가 반영된 일평균 수출금액은 1/4분기 12.5억 달러에서 2/4분기 13.6억 달러, 3/4분기는 13.7억 달러로 상승

■ 수입,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환율하락,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13.8%)에 이어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금액은 1/4분기 12.1억 달러에서 2/4분기 12.7억 달러, 3/4분기 12.9억 달러로 확대

■ 경상수지,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7~8월 중 흑자로 전환

- 2007년 7~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2.5억 달러로 상반기 적자(16.3억 달러)에 비해 약 39억 달러 개선
 - 지난해 7~8월(-10.3억 달러)에 비해서도 약 33억 달러 개선

■ 소비자물가는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2%대 초반의 안정세

-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4분기(2.4%)보다 0.1%p 하락
 -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안정된 데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환율 절상으로 상쇄되면서 수입물가가 하락한 데 기인

■양적 고용지표 다소 개선, 질적 고용지표 악화

- 7월과 8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30만 명 안팎 증가하며 양적 고용지표의 소폭 개선을 나타냈으나, 청년층과 중년층의 취업자수 감소세는 지속되었으며 주당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는 5.1%(7월)와 3.2%(8월) 감소
 - 취업자수 증감: 28.9만 명('07년 2분기) → 30.3만 명(7월) → 29.4만 명(8월)

■시장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점차 확산되면서 상승 기조를 시현

- 회사채 수익률: 5.85%(8월 말) → 5.97%(9월 말) → 6.02%(10월 12일)

■미국경기의 둔화 가능성 확대, 미 연준의 공격적 금융시장 안정책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다소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월말 이후 하락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 933.8(8월 말) → 932.4(9월 말) → 918.9(10월 12일)

2. 해외경제

■미국경제: 경기둔화 가능성 확대

-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확대

■일본: 경기회복세 주춤

-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2%(연율)로 대폭 하향 수정
 - 이는 GDP의 민간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고 대미수출의 감소로 7월 중 수출증가폭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

■ EU경제: 회복세 둔화

- 2007년 2/4분기 성장률(0.3%)은 전기(0.7%)에 비해 소폭 둔화
 - 독일의 건설투자 부진과 각국의 재정적자 해소 노력에 기인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긴축정책 가능성 확대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됨.
 - 총통화는 금리와 기준율의 인상 등 중국당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의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이와 함께 7~8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 2007년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기조

- 올 상반기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가는 지속적인 중동정세 불안과 미국시장의 재고 감소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정제시설 가동차질, 그리고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전망 등과 맞물려 높은 상승세 유지

II. 경제전망

1. 대외여건

-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경기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07년(5.2%)보다 낮은 4%대로 전망됨.
 - 미국경제, 주택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기부진
 - 중국경제, 미 경기 둔화, 긴축정책, 위안화 절상 등으로 소폭 둔화
 - 일본경제, 해외수요 감소와 설비투자 둔화로 회복세 약화
 - 유로지역경제,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경기 둔화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75달러 내외로 전망
 -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전망이다 데다 달러 약세에 따른 실물자산 투자가 가세하면서 국제유가의 강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및 달러약세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 상존

2. 대내여건

- 신정부 출범과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추진
 -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 살리기' 인 만큼 새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의 북핵시설을 연내 불능화 합의,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 등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
-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지속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유동성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 국내 펀더멘털 및 통화정책 여건상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음.

Ⅲ. 2008년 국내경제전망

1. 실물경제

■실질GDP 5.1% 성장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한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이 예상되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
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증가로 인해 2008년 실질GDP는 2007년(4.7%)보다
높은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민간소비 4.6% 증가 전망

- 2008년 민간소비는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의해 연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의해 민간
소비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건설투자 3.2% 증가 전망

- 2008년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 등 공공부문의 주도로 연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설비투자 9.0% 증가 전망

- 2008년 설비투자는 2007년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
에 따른 수출 둔화로 인해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9.0% 증가
전망

2. 대외거래

■수출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 상회

-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미국경제의
둔화, 중국의 거시경제 긴축기조, 달러약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
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전망

- 수입증가율은 내수회복세, 원화절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에 이어 2008년에도 수출증가율을 상회
- 2008년 경상수지는 98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약 -33억 달러) 전환
-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부족, 원화절상 등으로 해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할 전망

3. 소비자물가

-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2.3%)보다 높은 2.6%로 전망됨.
-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회복 등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4. 시장금리

- 2008년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는 2007년(5.6%)보다 높은 평균 6.1%로 전망됨.
- 국내외 실물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자금수요의 증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양호한 채권 수급 등이 금리상승 요인

5. 환율

- 2008년 환율은 2007년(약 930원)보다 소폭 낮은 910원으로 예상됨.
-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으나 경상수지 악화 등 원화약세 요인으로 인해 하락세가 제한

〈표 1〉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분기	2분기	상반기	3분기	4분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5.0	4.0	5.0	4.5	4.7	5.0	4.8	4.7	5.1
(SA, 전기비%)		0.9	1.7	2.2	1.1	1.1	2.0		
민간소비	4.2	4.1	4.2	4.1	4.3	4.4	4.4	4.2	4.6
건설투자	-0.4	3.9	3.2	3.5	1.7	0.3	0.9	2.1	3.2
설비+무형고정자산	7.8	10.1	11.0	10.5	6.2	7.5	6.9	8.7	9.0
수출(재화+서비스)	12.4	11.0	10.7	10.9	8.8	10.1	9.5	10.1	8.9
수입(재화+서비스)	11.3	11.7	12.3	12.0	9.8	11.8	10.8	11.4	10.3
소비자물가	2.2	2.1	2.4	2.3	2.3	2.5	2.4	2.3	2.6
생산자물가	2.3	1.8	2.5	2.2	2.1	2.4	2.2	2.2	2.4
경상수지(억 달러)	60.9	-16.6	0.3	-16.3	10.4	35.1	45.6	29.3	-32.9
상품수지(억 달러)	292.1	60.4	69.7	130.1	78.9	93.5	172.4	302.5	274.0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318.4	864.7	929.0	1793.6	939.8	988.3	1928.1	3721.8	4086.5
증가율%	14.8	14.1	13.1	13.6	10.2	11.5	10.9	12.2	9.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026.3	804.3	859.3	1663.6	860.9	894.9	1755.7	3419.3	3812.5
증가율%	18.4	14.0	15.0	14.5	8.9	14.3	11.6	13.0	11.5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1.2	-77.0	-69.4	-146.4	-68.5	-58.4	-126.8	-273.2	-306.8
환율(원/달러, 평균)	954.8	939.1	928.9	934.0	928.0	920.0	924.0	929.0	910.0
회사채수익률(3yrs, AA-)	5.2	5.3	5.5	5.4	5.8	5.9	5.8	5.6	6.1
실업률(%)	3.5	3.6	3.2	3.4	3.2	3.1	3.2	3.3	3.3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IV. 정책과제

- 차기정부는 지난 두 정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초기조건에서 출범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 일자리 창출 확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이룰 수 있는 내수활성화 정책¹⁾을 과감하게 추진
 - 내수활성화가 수반되어야 일자리 창출 가능
 - 취업자 증가는 내수증가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임. 1981~2006년 기간 중 취업자 증가율과 성장률, 수출증가율, 내수증가율의 상관관계수 중 내수증가율이 0.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 및 고용확대를 어렵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경제구조 변화에 기인한 내수 및 고용 부진요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통한 체질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도 및 관행 개선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일자리 보유자 보호에 맞추어졌던 정책초점이 이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로 옮겨져야 함.
 - 명목적 고용보호에서 고용확대를 통한 근로자 실질적 권익 증대로 정책목표가 바뀌어야 함.
 - 비정규직 보호강화보다는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가 시도하는 ‘최초고용계약제도’와 같은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1) 성장률이 5%면 경제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경제활성화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 첫째, 잠재성장률이 5%라는 인식은 그동안 성장률 저조에 따른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두 번째, 그동안 성장부진으로 잠재생산량 수준보다 낮았던 실제 생산량 수준과의 차이, 즉 누적된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고용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2006년 63.8%인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 기준)을 일본수준(70%)으로 높인다면 고용은 약 21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임.

2. 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 확장은 걱정되는 수준이며 이런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제약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감세가 바람직한 수단
 - 법인세 인하는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가 1%p 인하되면 실질GDP는 0.11~0.18%, 투자는 0.13~2.1%, 소비는 0.09% 증가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표 양성화율을 높이는 한편 면세점을 인하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함.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면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근로의욕을 고취, 생산성 향상 도모

3.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 출자총액제한 폐지
 - 출자의 목적은 신규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에 있는데,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이와 같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제약
 - 출자는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계열사로부터의 출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쟁국으로 투자하도록 작용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통한 균형회복이 목표가 되어야 함.
- 전경련은 2006년 출자총액제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2년 내에

약 27조 원이 투자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 만약 2006년에 27조 원의 50%(13.5조 원의 실질가치는 약 11.8조 원)가 투자되었을 경우, 고정투자의 규모는 214.6조 원이 아닌 226.3조 원으로 증가하며 고정투자 증가율은 3.2%에서 8.8%로 상승하였을 것임.
- 승수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금액만큼 실질GDP가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2006년 성장률은 5.0%가 아닌 6.6%가 되었을 것임.

■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
 -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 관행 종식
 - 명분에 상관없이 불법적, 폭력 시위는 엄격히 차단
- 사회 불안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각 분야의 안정성 확보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망과 공공 시설물
 - 서민 생활관련 범죄, 식료품 안전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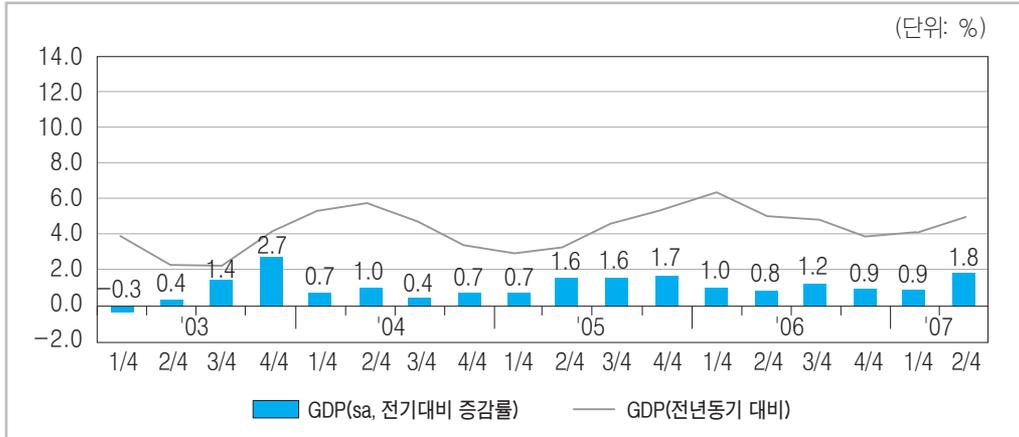
■ 2/4분기 성장률, 1/4분기 대비 큰 폭 상승

- 2007년 2/4분기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은 1.8%로, 2007년 1/4분기 (0.9%) 대비 0.9%p 상승
 - 전기대비: 0.9%('06년 4분기) → 0.9%('07년 1분기) → 1.8%(2분기)
 - 전년동기 대비: 4.0%('06년 4분기) → 4.0%('07년 1분기) → 5.0%(2분기)

- 지출항목별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을 살펴보면
 - 2006년 2/4분기 이후 계속 호전되던 민간소비는 2007년 2/4분기 내구재 소비 감소로 증가세 둔화
 - 2006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던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하여 하락반전
 -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3.4%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 1/4분기의 확대기조 지속
 - 지난 1/4분기 3.1%로 크게 반등했던 수출은 반도체, 선박, 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2/4분기 4.6%의 증가율 시현
 - 지난 1/4분기 5.4%를 보였던 수입은 운송장비 및 산업용기계 등의 수입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4.9%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증가세는 소폭 둔화

-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하락한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증가
 - 증가세가 둔화된 민간소비와 감소세로 반전한 건설투자로 인해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07년 1/4분기 1.6%p에서 2/4분기 1.3%p로 약화
 - 2/4분기 수출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수입증가세는 소폭 둔화되어, 순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7년 1/4분기 -0.8%p에서 2/4분기 0.3%p로 증가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민간소비	1.2	0.6	0.9	1.0	4.2	1.5	0.8
건설투자	0.0	-0.9	2.0	1.9	-0.4	0.8	-1.3
설비투자	-1.0	2.2	3.8	0.1	7.6	4.4	3.4
수출(재화와 서비스)	2.6	4.9	2.2	0.5	12.4	3.1	4.6
수입(재화와 서비스)	3.8	4.5	2.2	-0.6	11.3	5.4	4.9

자료: 한국은행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p)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내수	1.4	0.3	1.0	0.2	3.7	1.6	1.3
민간소비	0.6	0.3	0.4	0.5	2.1	0.7	0.4
건설투자	0.0	-0.1	0.3	0.3	-0.1	0.1	-0.2
설비투자	-0.1	0.2	0.4	0.0	0.8	0.5	0.4
수출(재화와 서비스)	1.4	2.7	1.3	0.3	6.7	1.8	2.7
순수출	-0.2	0.6	0.3	0.6	1.6	-0.8	0.3

자료: 한국은행

(2) 생산

■ 7월, 8월 제조업 생산 증가세 확대

- 2007년 2/4분기 7.1%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제조업 생산은 7월과 8월에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며 증가세가 크게 확대
 - 전년동기 대비: 7.1%('07년 2분기) → 14.7%(7월) → 11.7%(8월)
 - 2/4분기 11.1%의 회복세를 보였던 반도체·영상·음향·통신 업종은 7월과 8월에 23%를 상회하는 증가세 시현
 - 정보통신업종을 대표하는 ICT 제조업지수도 7월과 8월에 22%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2/4분기의 회복세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
 - 2006년 7월과 8월의 노조 파업에 의한 기저효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은 7월과 8월 전년동월 대비 각각 38.3%와 18.2%의 증가율을 보이며 제조업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에 기여
 - 2/4분기에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세를 유지하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산업은 7월과 8월에 각각 11.3%와 5.8%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둔화
 - 2/4분기 감소세에서 상승 반전한 경공업 분야의 생산은 7월과 8월에 각각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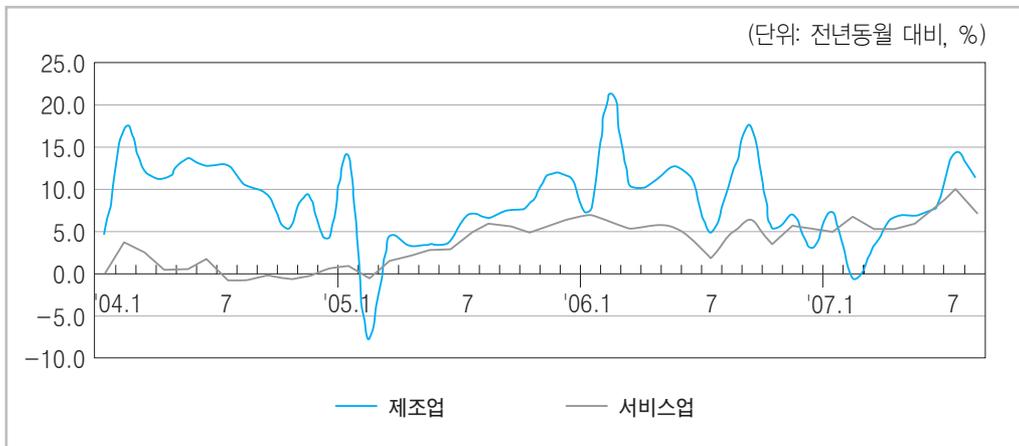
와 0.1%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 불안한 모습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월과 8월에 전년동월 대비 6.4%p와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4분기의 증가세 유지

■ 7월, 8월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지속

- 7월과 8월의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9.9%와 7.3% 증가하여 5.6%의 증가율을 보인 2007년 1/4분기 이후 증가세 확대 지속
 - 전년동기 대비: 5.6%('07년 1분기) → 6.4%(2분기) → 9.9%(7월) → 7.3%(8월)
-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를 주도
 - 숙박 및 음식점업과 통신업은 전년동월 대비 3%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서비스업 전체 증가세에 크게 미달
 - 교육 서비스업의 생산은 8월 들어 전년동월 대비 4.1% 감소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단위: 전년동기 대비 %, %p)

	2006년				2007년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제조업 전체	12.1	11.8	5.6	10.5	3.4	7.1	14.7	11.7
중공업	14.7	13.9	7.0	12.6	4.3	8.3	16.9	14.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9.4	6.4	22.5	-0.1	22.5	12.8	11.3	5.8
반도체·영상·음향·통신	33.7	25.1	11.8	25.2	3.1	11.1	23.3	2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8.6	7.6	3.5	8.6	0.2	8.5	38.3	18.1
경공업	0.3	2.4	-1.7	1.1	-1.2	1.1	4.0	0.1
ICT지수	29.6	23.3	12.0	22.8	3.9	10.8	22.3	21.6
평균가동률 증감(%p)	1.2	0.8	1.2	1.4	-0.2	2.1	6.4	2.5
서비스업 전체	5.4	4.4	4.8	5.2	5.6	6.4	9.9	7.3
도소매업	4.2	4.3	3.7	3.4	4.9	3.8	7.0	4.1
숙박 및 음식점업	2.4	2.3	-0.2	1.5	1.6	2.3	3.0	2.7
운수업	6.3	5.9	7.0	5.0	6.7	5.5	10.7	9.0
통신업	2.9	3.2	2.6	3.5	3.3	3.2	3.1	3.1
금융 및 보험업	9.2	4.8	4.7	10.6	9.1	15.6	23.0	19.4
부동산 및 임대업	8.2	7.4	14.3	9.4	5.8	3.3	7.5	4.8
사업서비스업	5.7	5.7	6.3	3.7	5.3	6.7	6.8	6.5
교육서비스업	2.4	1.4	4.4	1.1	2.7	1.7	5.5	-4.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1	11.9	8.9	9.4	9.6	9.6	8.1	12.4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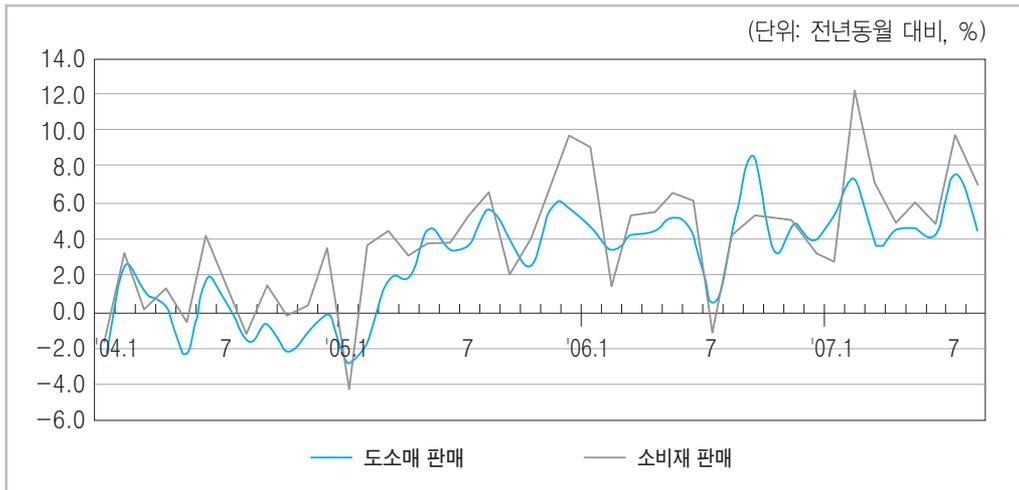
(3) 소비

■ 7월, 8월 소비증가세 확대

- 7월과 8월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판매, 도매업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7.7%와 4.5% 증가
 - 도소매 판매: 5.3%('07년 1분기) → 4.4%(2분기) → 7.7%(7월) → 4.5%(8월)

- 전년 동 기간 노조의 파업에 의한 기저효과와 신차효과로 인해 7월과 8월 자동차 판매는 각각 33.8%와 14.6% 증가
- 7월과 8월 소비재 판매는 내구재 판매 호조(7월)와 비내구재 판매 증가(7월, 8월)로 인해 증가세 확대
 - 소비재 판매: 7.1%('07년 1분기) → 5.3%(2분기) → 9.8%(7월) → 7.1%(8월)
 -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던 백화점 매출은 8월 들어 3.5% 증가한 반면, 대형할인점의 매출액 증가세는 다소 둔화
 -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매출은 낮은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무점포판매 매출은 7월과 8월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상반기 증가세를 확대해 가는 모습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4〉 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6년				2007년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도소매 판매	4.5	4.4	4.0	4.2	5.3	4.4	7.7	4.5
소비재 판매	6.1	2.9	4.5	4.7	7.1	5.3	9.8	7.1
백화점	6.0	0.4	0.7	3.7	-2.1	-1.6	-1.5	3.5
대형할인점	10.1	6.4	11.6	8.8	10.2	8.5	4.3	6.0
무점포 판매	20.2	21.4	5.2	16.5	9.1	8.1	10.2	12.5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1.8	0.4	1.7	0.6	2.1	0.2	3.8	1.1

자료: 통계청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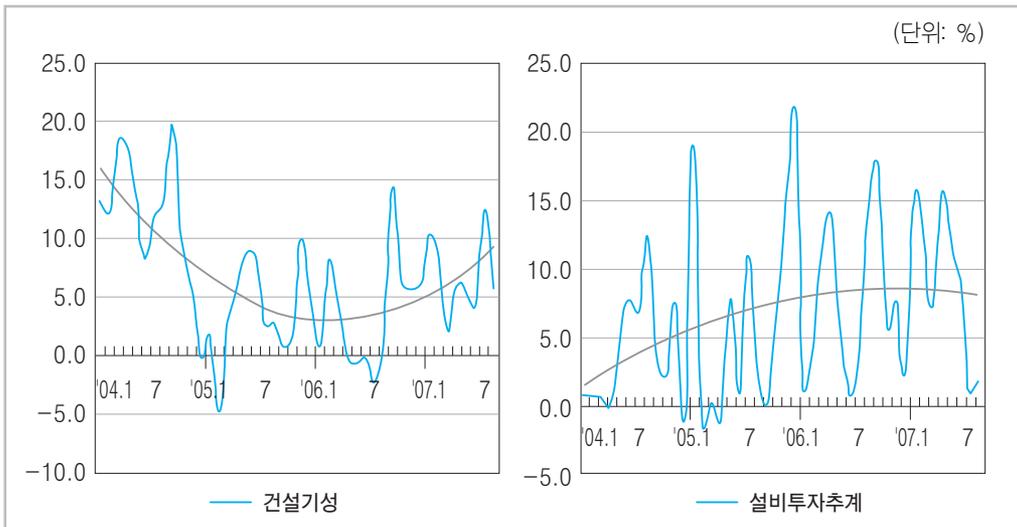
■ 7월, 8월 설비투자 증가세 저조

- 2/4분기 12.1% 증가했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는 반도체장비의 투자 감소와 ATM 교체투자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1.0%(7월)과 1.7%(8월)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둔화
- 7월 국내기계수주(경상금액 기준)는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4.7%로 크게 둔화
 - 7월의 높은 증가세는 공공운수업의 전동차와 지방자치단체 데스크톱 PC 등의 증가로 공공발주와 통신기계 및 선박용 엔진 등의 민간발주가 각각 전년동월 대비 58%와 27.7% 증가한 데 기인
 - 8월 국내기계수주의 둔화된 증가세는 공공발주의 21.3% 감소와 민간발주의 8.1% 낮은 증가에 기인

■ 건설투자 7월 증가, 8월 둔화

- 7월 국내건설기성(경상)은 전년동월 대비 12.3%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5.5% 증가
 - 7월 큰 폭의 국내건설기성 증가율은 공공부문의 발주 13.8% 증가와 민간부문의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8월의 둔화는 공공부문의 감소와 민간부문의 증가세 둔화에 기인
- 7월 건설수주금액은 전년동월 대비 14.9%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13.4% 증가
 - 7월 공공부문의 51.1%의 높은 증가율에 불구하고 민간주택수주 부진으로 민간 부문이 38.8% 감소
 - 8월 민간부문은 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공공부문이 72.5% 증가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 -5〉 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6년				2007년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추계(불변)	6.7	11.8	5.1	7.4	11.3	12.1	1.0	1.7
국내기계수주(불변)	24.4	21.0	16.7	18.8	15.3	7.4	30.2	4.7
공공	24.7	19.0	22.1	7.1	12.1	-23.5	58.0	-21.3
민간	24.4	21.3	15.8	20.4	15.6	10.5	27.7	8.1
제조업	30.0	35.0	32.8	32.3	7.0	5.8	30.2	5.7
비제조업	19.1	10.8	2.9	10.4	24.8	15.3	25.5	10.3
건설기성액(경상)	-0.3	4.8	6.0	3.7	6.5	5.2	12.3	5.5
건설수주(경상)	-14.7	37.1	27.1	9.0	26.3	26.3	-14.9	13.4
공공부문	-29.9	21.2	2.7	-6.3	49.3	21.2	51.1	72.5
민간부문	-6.0	36.8	28.3	12.8	21.8	17.0	-38.8	6.0
민자	-73.0	552.5	362.1	55.9	-64.3	683.4	514.6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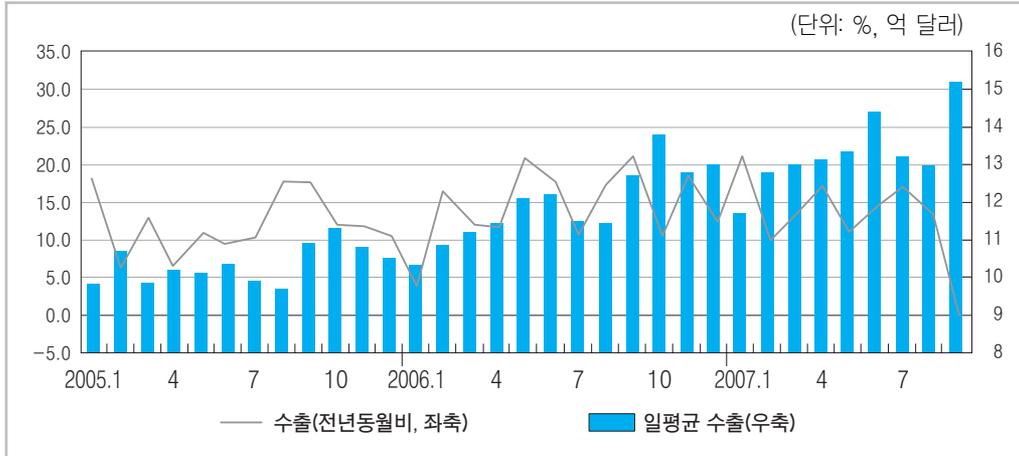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5) 수출

■ 수출호조세 지속

- 2007년 3/4분기 수출증가율(9.9%)이 2/4분기(14.1%)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이는 9월 수출이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동월에 비해 감소(-0.4%)한 데 기인
 - 조업일수가 반영된 일평균 수출금액은 1/4분기 12.5억 달러에서 2/4분기 13.6억 달러 3/4분기는 13.7억 달러로 상승

〈그림 1-5〉 최근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 품목별 수출

- 반도체는 상반기 급락했던 가격이 7월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7~8월 중에는 수출실적이 개선되었으나 9월(1~20일) 중에는 기존재고 미해소, 경쟁업체 생산증가 등으로 4.0% 증가에 그침.
- 자동차는 주력차종 수출증가, 신차종 확대 등에 힘입어 2/4분기 20.4%, 7~8월 중에는 약 55% 상승했으나, 9월(1~20일) 중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수요감소 및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1%로 크게 하락
- 무선통신기기는 북미 및 신흥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확대와 중국 등 휴대폰 부품수요 증가에 힘입어 2/4분기(8.9%)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7~8월 17.5% 9월(1~20일) 22.3%로 증가세 확대
- 컴퓨터는 신학기 등 계절적 성수기에 힘입어 프린터, 모니터, HDD 등 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실적 개선
- 선박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석유제품은 국내 석유정제시설 보수공사로 7월 이후 감소세 지속

〈표 1-6〉 품목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1~20일
수출전체	10.6	16.9	16.3	13.8	14.4	14.6	14.1	16.5	14.0	20.3
반도체	13.9	16.3	19.6	48.1	24.6	20.8	4.3	16.3	14.6	4.0
자동차	10.5	7.8	15.3	13.4	11.6	3.4	20.4	64.6	45.8	-2.1
무선통신기기	1.4	-2.0	1.7	-7.4	-1.7	-0.5	8.9	28.0	7.2	22.3
컴퓨터	-4.0	-15.5	-14.5	-9.6	-10.9	-4.5	12.6	21.7	23.1	20.8
선박	-1.1	48.2	11.6	41.0	24.8	30.5	40.7	-24.7	7.0	109.7
석유제품	35.3	54.2	47.9	2.1	32.8	20.7	10.1	-11.1	-12.5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 수출

- 對중국 수출은 2/4분기 14.4%, 7~8월 18.6%, 9월(1~20일) 21.7%로 증가세 확대. 지난해 연간 증가율(12.2%)을 상회하는 호조 지속
- 對ASEAN 수출은 2006년(16.9%)에 이어 2007년(1월 1일~9월 20일 23%)에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對일본 수출은 원/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상반기 1.5% 감소한 데 이어 7~8월(-0.7%)에도 감소했으며 9월(1~20일)에는 2.3% 증가에 그침.
- 對미국 수출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자동차 및 반도체 수출부진으로 8월과 9월(1~20일) 중 감소세를 보임.
- 對EU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수출호조로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1월 1일~9월 20일 중 17.2% 증가

<표 1-7> 지역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1~20일
중국	12.6	11.2	11.8	13.2	12.2	18.9	14.4	22.1	15.2	21.7
일본	11.6	9.2	13.3	7.8	10.4	-1.6	-1.4	3.2	-4.6	2.3
미국	0.0	10.7	9.0	-1.0	4.5	11.0	7.8	5.7	-0.9	-0.3
ASEAN	10.3	14.0	17.1	25.4	16.9	27.4	25.3	6.5	6.2	49.1
EU	7.4	16.1	13.3	7.7	11.0	14.6	17.3	41.5	17.9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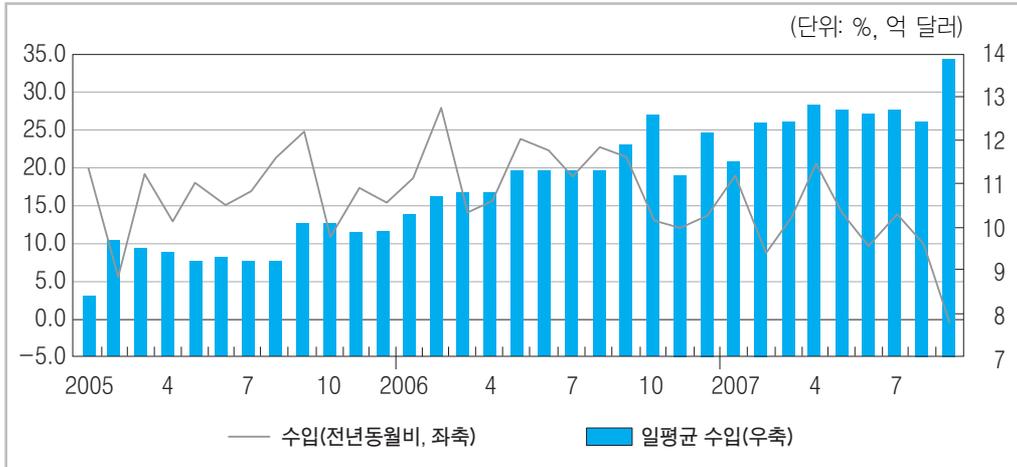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6) 수입

■ 수입,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환율하락,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13.8%)에 이어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3/4분기 수입증가율(7.1%)은 2/4분기(14.4%)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9월 수출이 감소(-2.1%)한 데 기인. 7~8월 중에는 두 자릿수(12.0%)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금액은 1/4분기 12.1억 달러에서 2/4분기 12.7억 달러, 3/4분기 12.9억 달러로 확대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 용도별 수입

- 원자재는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생산 및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7~8월 약 12%, 9월(1~20일) 11.7%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유지
- 자본재는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입증가세가 상반기 약 12%에서 3/4분기에는 약 10%로 둔화
- 소비재는 원화강세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약 20%에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

〈표 1-8〉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1~20일
수입총액	19.7	20.4	21.1	13.0	22.8	13.4	14.4	14.3	9.8	10.7
원자재	24.6	24.7	26.7	16.0	11.7	13.0	14.6	16.5	7.4	11.7
자본재	12.0	11.9	14.4	8.6	19.9	12.8	16.5	8.9	12.6	8.9
소비재	19.5	21.8	20.8	17.8	18.4	21.4	14.7	23.8	16.6	17.0

자료: 한국무역협회

(7) 경상수지

■ 경상수지,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7~8월 중 흑자로 전환

- 2007년 7~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2.5억 달러로 상반기 적자(16.3억 달러)에 비해 약 39억 달러 개선
 - 지난해 7~8월(-10.3억 달러)에 비해서도 약 33억 달러 개선
-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된 데 기인
 - 상품수지: '06년 7~8월 30.6억 달러 → '07년 7~8월 60.7억 달러
 - 서비스수지: '06년 7~8월 -38.3억 달러 → '07년 7~8월 -41.3억 달러
 - 소득수지: '06년 7~8월 3.6억 달러 → '07년 7~8월 9.8억 달러
 - 경상이전수지: '06년 7~8월 -6.2억 달러 → '07년 7~8월 -6.7억 달러

〈표 1-9〉 최근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2006년						2007년		
	1/4	2/4	7~8월	3/4	4/4	연간	1/4	2/4	7~8월
경상수지(=A+B+C+D)	-11.2	6.9	-10.3	3.7	61.4	60.9	-16.6	0.3	22.5
A. 상품수지	52.2	74.1	30.6	62.3	103.5	292.1	60.4	69.7	60.7
B. 서비스수지	-50.0	-38.8	-38.3	-53.8	-45.0	-187.6	-61.8	-44.0	-41.3
여행수지	-29.5	-28.4	-26.2	-37.8	-33.4	-129.2	-36.1	-36.6	-31.4
사업서비스수지	-15.1	-15.1	-11.6	-18.5	-19.6	-68.3	-22.6	-17.1	-12.3
C. 소득수지	-4.8	-16.5	3.6	6.1	9.8	-5.4	-6.9	-15.4	9.8
D. 경상이전수지	-8.6	-11.9	-6.2	-10.8	-6.8	-38.2	-8.3	-10.0	-6.7

자료: 한국은행

2.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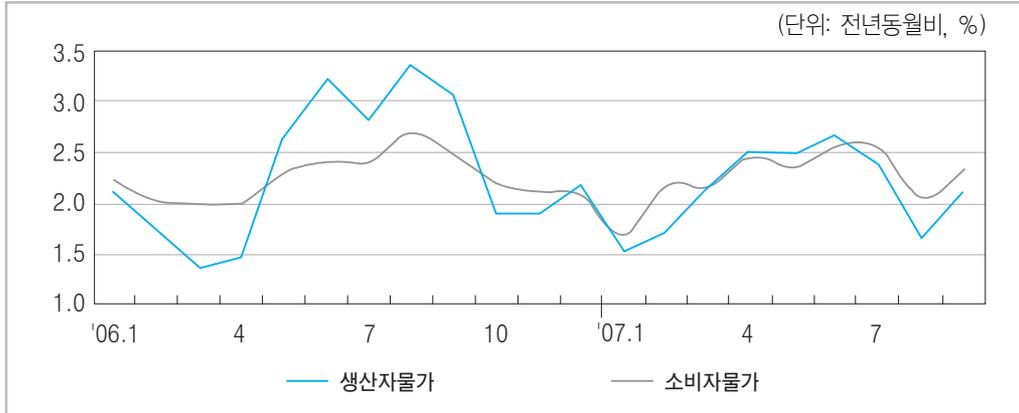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대 초반의 안정세

-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4분기(2.4%)보다 0.1%p 하락
 -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안정된 데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환율 절상으로 일부 상쇄되면서 공업제품가격이 1.5% 상승에 그침.
 - 집세가 안정되고 공공서비스의 가격 오름세도 둔화
 - 9월 중에는 호우로 인한 출하감소 및 명절 수요증가로 농축수산물가격이 오르고 도시가스요금 인상(11.1%)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오름세 확대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은 안정세 지속
 - 2.1%('06년 4분기) → 2.2%('07년 1분기) → 2.3%(2분기) → 2.3%(3분기)

■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

- 국제유가의 상승,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 유지
 - 3.1%('06년 3분기) → 2.0%(4분기) → 1.8%('07년 1분기) → 2.6%(2분기) → 2.1%(3분기)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수입물가(원화기준) 증가세 둔화

- 상반기 상승세를 보였던 수입물가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
 - 원화기준 수입물가 증가율: 1.2%('07년 1분기) → 2.8%(2분기) → -0.1%(7월) → -1.0%(8월)
 - 달러기준 혹은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도 증가세 크게 둔화

〈표 I -10〉 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6년			2007년						
	3/4	4/4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2.5	2.1	2.5	2.0	2.4	2.3	2.5	2.0	2.3	
상품	2.0	0.8	2.7	0.9	1.4	1.3	1.8	0.5	1.6	
농축수산물	0.7	1.0	0.9	1.4	2.0	0.5	3.5	-2.6	0.7	
공업제품	2.4	0.8	3.4	0.7	1.4	1.5	1.4	1.4	1.8	
서비스	2.9	3.0	2.2	2.8	3.0	2.9	2.9	2.9	2.8	
집세	0.5	1.1	-0.3	1.6	1.8	2.0	1.9	2.0	2.0	
공공서비스	4.0	4.1	2.7	2.7	3.4	2.9	3.1	3.1	2.6	
개인서비스	3.1	2.9	3.0	3.1	3.1	3.2	3.1	3.2	3.2	
근원인플레이션	2.1	2.1	1.9	2.2	2.3	2.3	2.3	2.3	2.3	
생산자물가	3.1	2.0	1.8	1.8	2.6	2.1	2.4	1.7	2.1	
수 입 물 가	원화기준	5.1	-0.4	4.8	1.2	2.8		-0.1	-1.0	
	계약기준	13.6	9.7	15.3	5.2	5.3		3.4	1.6	
	달러기준	13.3	10.1	14.6	5.4	5.1		3.3	1.8	
가 공 단계별	원재료	9.5	1.5	20.4	-1.6	0.4		0.2	-1.2	
	중간재	4.8	1.9	0.5	3.2	4.1		2.5	1.5	
	최종재	0.6	0.4	0.4	0.4	1.1		0.7	-0.1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부동산 가격 안정세 지속

- 지난해 4/4분기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주택매매가격이 올 1월 이후 안정세 지속
 - 특히 '06년 11·15대책과 '07년 1·11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그동안 오름폭이 컸던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
 - 최근에는 매수자들은 분양가상한제행(2007년 9월부터 시행)에 따른 분양가 인하 기대, 매도자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

〈표 1-11〉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6년						200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0.2	0.2	0.5	1.3	3.1	1.9	0.9	0.4	0.2	0.1	0.1	0.1	0.3	0.2	0.3
서울강북(14개구)	0.4	0.3	0.7	1.5	4.1	3.8	2.0	0.6	0.6	0.5	0.4	0.5	0.7	0.4	0.6
서울강남(11개구)	0.3	0.2	0.9	0.2	5.4	2.2	1.1	0.2	0.2	0.0	-0.2	0.1	0.4	0.3	0.2

자료: 국민은행

3. 노동시장

■ 양적 고용지표 다소 개선, 질적 고용지표 악화

- 7월과 8월 취업자수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30.3만 명과 29.4만 명 증가
 - 26.4만 명('07년 1분기) → 28.9만 명(2분기) → 30.3만 명(7월) → 29.4만 명(8월)
- 연령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로 살펴본 질적 고용지표는 악화
 - 7월과 8월 청년층(15~29세) 및 중년층(30~49세) 취업자수의 감소세는 지속된 반면, 장년층(50세 이상)의 취업자수는 21.8%(7월)과 6.3%(8월) 증가
 - 7월과 8월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5.1%와 3.2% 감소한 반면,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는 44.4%(7월)와 20.1%(8월) 증가

■ 임금근로자 증가세 소폭 확대, 비임금근로자 감소세 확대

- '06년 1/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2%대 증가세는 8월에는 3.5%로 소폭 확대
 - '06년 4/4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증가세는 7월과 8월에 6%대로 확대
 - 임시직근로자는 7월 1.2% 감소, 8월 0.5% 증가
 - '06년 3/4분기부터 지속된 일용직근로자의 감소세는 7월과 8월에도 지속

- '06년 1/4분기부터 지속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는 8월 3% 감소로 확대
 -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종사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7월 0.7%, 8월 1.8% 감소, 무급가족 종사자수는 7월 3.8%, 8월 7.8% 감소
- 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월과 8월에 각각 67.9%와 67.7%로 2/4분기 평균 수준을 유지

〈표 1-12〉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 대비, %)

		2006년				2007년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취업자수		23,409	23,314	23,303	23,151	22,841	23,698	23,750	23,458
전년동기 대비 증감		283	287	278	295	264	289	303	294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4.5	2.1	2.4	0.6	6.4	1.8	44.4	20.1
	36시간 이상	1.0	1.2	0.9	1.5	0.3	1.1	-5.1	-3.2
연령별	15~29세	-4.6	-3.8	-3.7	-4.0	-2.1	-1.6	-1.3	-0.9
	30~49세	1.1	1.0	0.4	0.9	-0.1	-0.5	-0.4	-0.6
	50세 이상	5.8	5.5	6.4	6.0	6.2	6.5	21.8	6.3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근로자	-0.6	-1.1	-1.5	-0.9	-2.2	-1.1	-1.3	-3.0
	자영업주	-0.2	-1.0	-1.0	-0.6	-1.9	-0.9	-0.7	-1.8
	무급가족종사자	-2.4	-1.3	-3.6	-2.2	-3.2	-1.8	-3.8	-7.8
	임금근로자	2.2	2.4	2.6	2.4	2.8	2.4	2.6	3.5
	상용	2.8	3.7	4.8	3.6	4.3	4.6	6.7	6.3
	임시	1.7	2.5	1.3	1.7	2.5	0.7	-1.2	0.5
	일용	1.1	-2.1	-2.4	-0.4	-2.4	-1.7	-3.3	-0.7
임금근로자비율		67.0	66.7	67.6	67.2	68.5	67.8	67.9	67.7

자료: 통계청

■ 7월, 8월 실업률 개선

-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0.2%p(7월) 0.3%p(8월) 감소
 - 7월과 8월 실업자는 각각 79.5만 명과 75.6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4%와 6.3%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3.2%(7월)와 3.1%(8월) 수준
 - 청년(15~29세)실업률도 전년동월 대비 0.4%p(7월)와 0.7%p(8월) 낮아진 7.6%(7월)와 6.7%(8월)로 개선

■ 구직단념자 감소폭 둔화로 비경제활동인구 소폭 증가

-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 대비 2만 명(7월), 3천 명(8월) 감소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 대비 11.6만 명(7월), 15.4만 명(8월) 증가
 - 8월 구직단념자는 11.9만 명으로 2/4분기보다 2.4만 명 증가하였고,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01.8만 명으로 2/4분기보다 37.1만 명 증가

〈표 1-13〉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06년				2007년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실업자	816	799	780	827	851	791	795	756
실업률	3.4	3.3	3.2	3.5	3.6	3.2	3.2	3.1
청년(15~29세)실업률	7.7	7.5	7.8	7.9	7.6	7.3	7.6	6.7
계절조정실업률	3.5	3.5	3.4	3.4	3.2	3.3	3.4	3.2
비경제활동인구	14,505	14,722	14,807	14,784	15,305	14,647	14,660	15,018
구직단념자	114	119	125	121	129	95	104	119

자료: 통계청

4. 금융시장

(1) 통화지표

■ 최근 M2 증가율은 다소 하락하여 9월 중 10% 후반으로 추정

- 8월 중 M2 증가율은 전년동월 통화증가율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11.4% 까지 상승하였으나 9월 들어 10%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민간신용 증가세의 둔화와 법인세 납부 등으로 인한 정부부문으로의 통화 환수에 기인
- 9월 중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도 8월의 10.3%에 비해 다소 낮아진 1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표 1-14〉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평잔 기준)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중	1/4	2/4	7월	8월	9월
M2	7.0	7.2	8.1	10.9	8.3	11.5	11.0	10.9	11.4	10 후반
Lf ¹⁾	7.2	7.4	7.5	9.2	7.9	10.0	10.2	10.0 ^o	10.3 ^o	10 내외

주: 1)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자료

(2) 금리

■ 시장금리는 시장의 불안심리가 점차 완화되면서 상승 기조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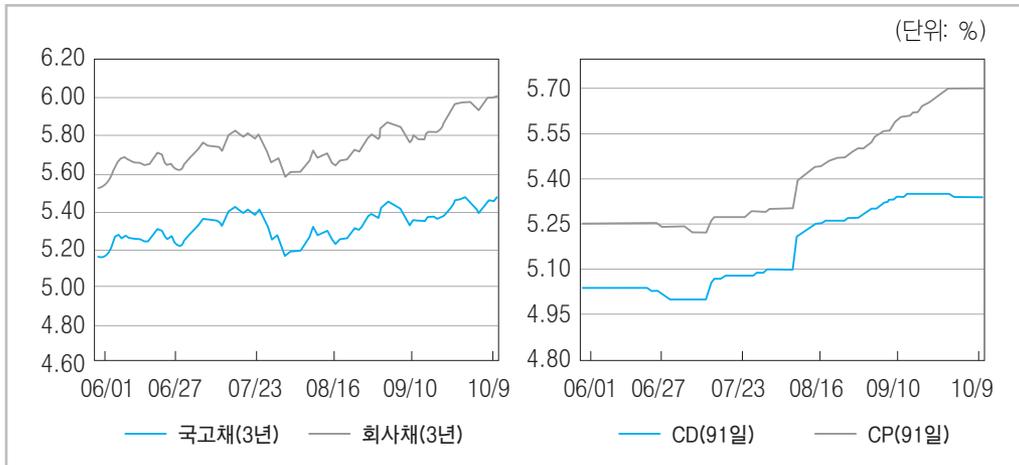
-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시장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점차 확산되면서 상승 기조를 시현
 -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

여서 시장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상승 기조를 시현

- 국고채 유통수익률: 5.43%(8월 말) → 5.46%(9월 말) → 5.48%(10월 12일)
- 회사채 유통수익률: 5.85%(8월 말) → 5.97%(9월 말) → 6.02%(10월 12일)

- 안정 기조를 유지하던 단기 시장금리는 8월 중순 들어 급등하여 상승세를 유지
 - CD 및 CP 발행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시장금리는 상승 기조를 시현하고 있으며 10월 들어 수급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모습
 - 콜금리는 목표치 5%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

<그림 1-8>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9〉 최근 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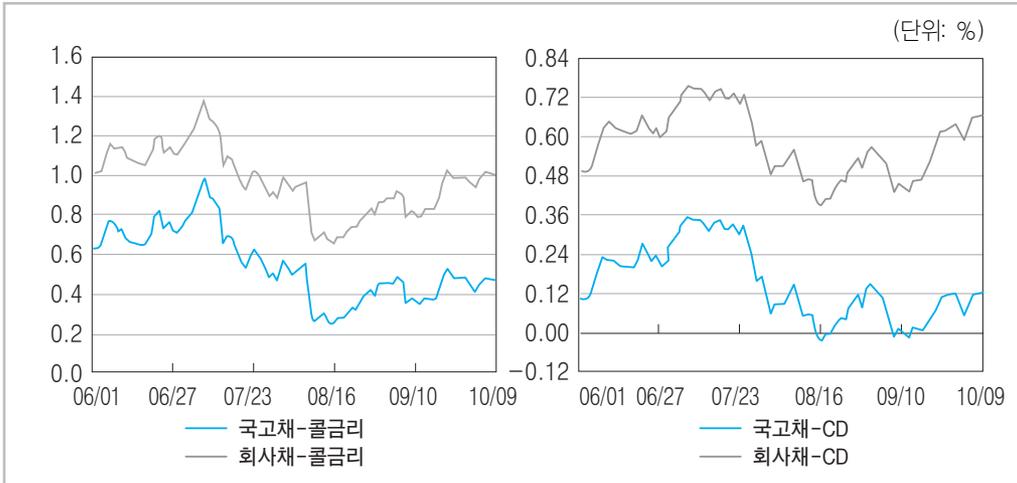
■ 장단기 금리 차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 기조 시현, 신용스프레드는 뚜렷한 상승세 시현

- 장단기 금리 차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거나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8월 중순 이후 상승 기조를 시현
 - 콜금리와 CD금리는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장기 시장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 기조를 시현함에 따른 결과
 - 한편 전체적인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 9월 들어 회사채 수익률의 상승 속도가 국고채보다 빨라짐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도 최근 뚜렷한 상승세 시현

■ 글로벌 신용경색의 완화로 인해 외평채 가산금리는 하향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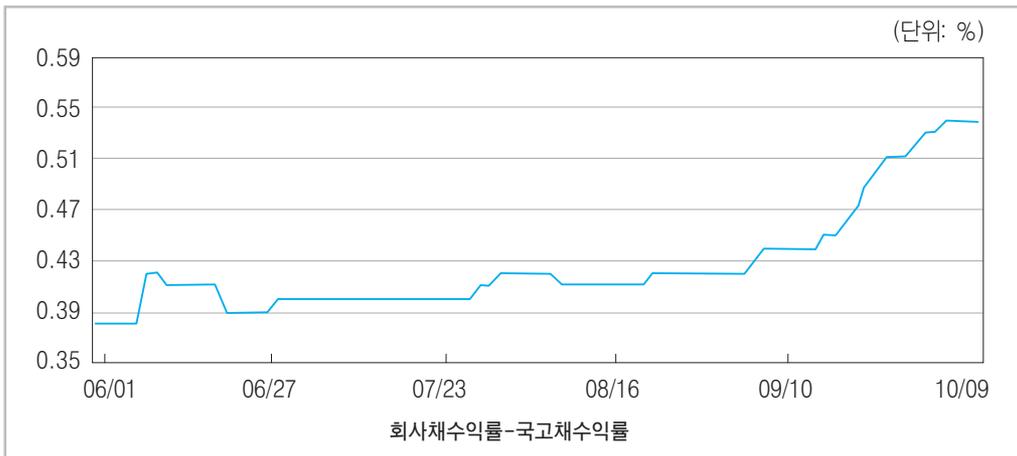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한때 급격히 상승하였던 외평채 가산금리는 국제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하향세로 전환
 - 외평채 가산금리(bp): 71(7월 24일) → 92(8월 17일) → 74(10월 10일)

〈그림 1-10〉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1〉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I -15〉 주요 금리 현황

(단위: 연리 %, 말일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일
콜금리(1일물)(A)	3.76	4.60	4.52	4.76	4.98	4.98	5.00
CD유통수익률(91일)	4.09	4.86	5.00	5.10	5.29	5.35	5.47
CP유통수익률(91일)	4.32	5.03	5.24	5.29	5.51	5.69	6.01
국고채(3년)(B)	5.08	4.92	5.26	5.22	5.43	5.46	5.34
회사채(3년, AA-)(C)	5.52	5.29	5.66	5.64	5.85	5.97	5.70
B-A(%P)	1.32	0.32	0.74	0.46	0.45	0.48	0.47
C-A(%P)	1.76	0.69	1.14	0.88	0.87	0.99	1.01
C-B(%P)	0.44	0.37	0.40	0.42	0.42	0.51	0.5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외평채 가산금리는 7월 말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급상승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외평채 가산금리는 7월 말 이후 급등하였다가 미 연준의 재할인을 인하조치(8월 17일)로 시장불안정이 완화되면서 소폭 하락
 - 외평채 가산금리(bp): 62(3월 30일) → 57(5월 31일) → 71(7월 24일) → 90(8월 1일) → 87(8월 17일)

〈그림 1-12〉 외평채¹⁾ 가산금리 추이



주: 1) 2014년 만기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및 대출 평균금리는 상승세 유지

-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8월 중에는 5.11%를 기록
 - 8월 9일 콜금리 목표 인상(4.75% → 5.00%)과 일부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등으로 8월 중 전월에 비해 순수저축성예금금리가 0.18%p, 시장형 금융상품금리가 0.10%p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0.14%p 상승
-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중 하락으로 반전한 대출 평균금리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8월 중 6.56%를 기록
 - 대기업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공공·기타 대출 등 전 부문에 있어 0.10% 이상의 고른 상승세를 보이며 8월 중 대출 평균금리는 전월에 비해 0.15%p 상승

〈표 I -16〉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단위: 연%, %p)

	2005년	2006년	2007년					월중 증감
	12월	12월	5월	6월	7월	8월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¹⁾	4.14	4.60	4.86	4.87	4.97	5.11	0.14	
순수저축성예금	4.05	4.53	4.78	4.80	4.87	5.05	0.18	
시장형금융상품	4.27	4.66	4.95	4.95	5.06	5.16	0.10	
대출 평균금리 ²⁾	5.74	6.19	6.48	6.42	6.41	6.56	0.15	
기업대출	5.80	6.30	6.51	6.47	6.46	6.59	0.13	
(대기업)	5.24	5.88	6.11	5.87	5.92	6.01	0.09	
(중소기업)	5.92	6.40	6.60	6.63	6.61	6.74	0.13	
가계대출	5.63	5.97	6.39	6.33	6.38	6.51	0.13	
(주택담보대출)	5.60	5.88	6.17	6.13	6.24	6.38	0.14	
(신용대출)	5.61	6.13	6.69	6.58	6.60	6.71	0.11	
공공·기타대출	5.01	5.45	6.00	5.48	5.58	5.72	0.14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 최근 은행의 기업대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 들어서는 큰 폭으로 증가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석자금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소기업대출이 9월 들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7.8조 원)하였으며 대기업대출도 호조세(1.8조 원 증가)를 시현
 - 은행의 기업대출 증감 추이: +3.8조 원('07년 7월) → +4.8조 원('07년 8월) → +9.6조 원('07년 9월)
-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및 CP 발행은 만기도래분이 늘어나 순상환을 기록

- 주식발행액: 0.6조 원('07년 7월) → 0.8조 원('07년 8월) → 1.1조 원('07년 9월)
- 8월 중 순발행을 기록하던 회사채 발행은 9월 들어 순상환으로 전환되었고 CP 발행은 두 달 연속으로 순상환을 기록 중

〈표 1-17〉 기업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6년			2007년				2007년 9월 말 잔액
	연중	1~9월	9월	7월	8월	9월	1~9월	
은행원화대출 ¹⁾	42.2	30.7	5.7	3.8	4.8	9.6	58.2	375.8
(대기업)	-1.3	-1.8	-0.2	0.6	0.8	1.8	5.9	33.3
(중소기업)	43.5	32.5	5.9	3.1	3.9	7.8	52.3	342.5
은행사모사채인수 ²⁾	16.6	12.3	1.0	-1.1	-0.6	-0.3	-3.5	27.5
회사채순발행 ³⁾	-2.9	-0.8	1.0	-0.2	0.1	-0.5	-2.0	-
CP순발행 ⁴⁾	2.8	5.2	-0.2	2.2	-0.1	-1.4	5.5	19.3
주식발행	5.0	3.7	0.3	0.6	0.8	1.1	4.6	-

주: 1) 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공기업 발행분 포함.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4) 증권사 및 중금사 취급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크게 축소

- 8월 중 크게 증가한(3.4조 원) 가계대출은 9월 들어 증가폭이 크게 축소(0.9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8월에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9월 들어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폭 축소: 0.6조 원(8월) → 0.3조 원(9월)
 - 학자금대출, 휴가철 카드 사용 등으로 8월 중 크게 증가한 마이너스통장대출도 9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폭 축소: 2.8조 원(8월) → 0.6조 원(9월)

〈표 1-18〉 은행의 가계대출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연중	1~9월	9월	7월	8월	9월	1~9월	9월 말 잔액
가계대출 ¹⁾	29.4	26.2	3.4	1.8	3.4	0.9	10.8	356.5
(주택담보대출 ²⁾)	20.6	16.7	2.6	0.1	0.6	0.3	1.8	218.8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9.2	9.6	0.9	1.6	2.8	0.6	8.9	135.9

주: 1) 신탁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가계신용 잔액은 '07년 2/4분기 중 전 분기에 비해 증가폭 확대

- 2007년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596조4,407억 원으로 2분기 중 9조9,238억 원 증가하여 전 분기(4조5,534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분기(16조7,287억 원 증가)에 비해서는 증가폭 축소
 - '07년 2분기 중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9조4,451억 원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판매신용은 전분기의 감소(-2,936억 원)에서 4,787억 원 증가로 전환
 - 가계대출 증가는 예금은행 가계대출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였으며 판매신용의 증가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강화 등에 기인

〈표 1-19〉 가계신용 추이

(단위: 십억 원, %)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3월 말	6월 말
가계신용잔액 (A+B)	521,495.9 (9.9) [46,833.6]	528,767.2 (10.7)	545,495.9 (10.4)	558,817.6 (10.4)	581,963.5 (11.6)	586,516.9 (10.9)	596,440.7 (9.3)
		[60,467.6]				[14,477.2]	
		<7,271.3>	<16,728.7>	<13,321.7>	<23,145.9>	<4,553.4>	<9,923.8>
가계대출잔액 (A)	493,468.7 (9.8) [44,070.5]	500,845.5 (10.5)	516,661.6 (10.2)	529,452.7 (10.2)	550,431.3 (11.5)	555,278.3 (10.9)	564,723.4 (9.3)
		[56,962.6]				[14,292.1]	
		<7,376.8>	<15,816.1>	<12,791.1>	<20,978.6>	<4,847.0>	<9,445.1>
판매신용잔액 (B)	28,027.3 (10.9) [2,763.2]	27,921.8 (13.5)	28,834.4 (13.9)	29,365.0 (15.1)	31,532.2 (12.5)	31,238.6 (11.9)	31,717.3 (10.0)
		[3,504.9]				[185.1]	
		<-105.5>	<912.6>	<530.6>	<2,167.2>	<-293.6>	<478.7>

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안은 전분기말대비 증감액, [] 안은 연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4) 자금흐름 동향

■ 금융기관 수신고는 양호한 증가세 시현

- 은행 수신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그 증가폭이 확대
 - 은행 수신: -8.3조 원('07년 7월) → +4.3조 원('07년 8월) → +6.5조 원('07년 9월)
 - 법인의 자금수요로 인한 인출로 정기예금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수시입출식과 요구불예금은 9월 들어 월말 휴일로 인한 결제이월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은행의 대출재원 마련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단기시장성 수신(CD 등)과 은행채 발행의 증가세 지속
- 자산운용사 수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9월 들어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자산운용사 수신: +3.9조 원('07년 7월) → +4.0조 원('07년 8월) → +3.3조 원('07년 9월)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9월 들어 주식형펀드의 수신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
- 증권사 수신은 9월 들어 전월의 감소(-0.2조 원)에서 2.3조 원 증가로 전환
- 주식시장의 부진 및 주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고객예탁금은 감소한 반면 단기 투자의 확대로 RP 수신은 증가폭 확대
- 종금사 수신은 8월의 1.8조 원 증가에서 9월 들어 1.6조 원 증가함으로써 증가폭이 소폭 둔화
- CMA 수신은 정체하고 있으며 발행어음 및 CP도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MMF 수신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9월 들어서도 소폭 감소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의 하락세: 50.8%('07년 6월) → 50.6%('07년 7월) → 50.2%('07년 8월) → 50.1%('07년 9월)

<표 1-20>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연중	연중	7월	8월	9월	9월 말 잔액
은행 수신	36.0	41.5	-8.3	4.3	6.5	796.2
실세요구불예금	8.4	4.2	-1.4	-1.5	4.6	58.1
수시입출식	22.0	10.8	-6.1	-1.1	0.5	163.4
정기예금	-8.0	16.5	-3.6	-0.1	-2.4	269.0
단기시장성	20.2	15.7	1.9	5.2	0.1	127.9
은행채	8.2	31.6	1.3	2.4	3.8	131.8
자산운용사 수신	17.3	30.3	3.9	4.0	3.3	269.5
MMF	5.0	-7.7	-4.0	-2.8	-0.4	51.0
주식형	17.6	20.3	11.0	6.0	3.3	84.0
채권형	-24.5	-1.0	-0.3	0.3	-0.4	46.3
혼합형	7.9	5.6	-1.9	-0.1	0.3	41.5
신종펀드	11.2	13.1	-0.8	0.7	0.4	46.8
증권사 수신	6.5	8.0	1.7	-0.2	2.3	43.2
고객 예탁금	3.8	-3.5	0.6	-1.8	-0.1	12.7
RP	2.7	11.5	1.1	1.6	2.4	30.5
종금사 수신 ¹⁾	5.9	10.1	2.0	1.8	1.6	52.0
발행어음	1.1	6.0	1.2	1.1	1.0	21.5
CMA	0.9	0.8	0.1	-0.2	0.0	4.6
어음매출(CP)	3.9	3.3	0.7	0.9	0.6	25.9

주: 1) 종금사 수신은 9. 27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동향

〈표 I -21〉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¹⁾ 비중

(단위: %, 조 원)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07년 9월 평균잔액
단기수신 비중	51.8	51.1	50.8	50.6	50.2	50.1	484.5
장기수신 비중	48.2	48.9	49.2	49.4	49.8	49.9	48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7.2

주: 1) 단기수신: 은행,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종금사의 만기 6개월 미만 금융상품 수신의 평균잔액 기준(요구 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RP, 표지어음, MMF, 단기채권형펀드, CMA, 자발어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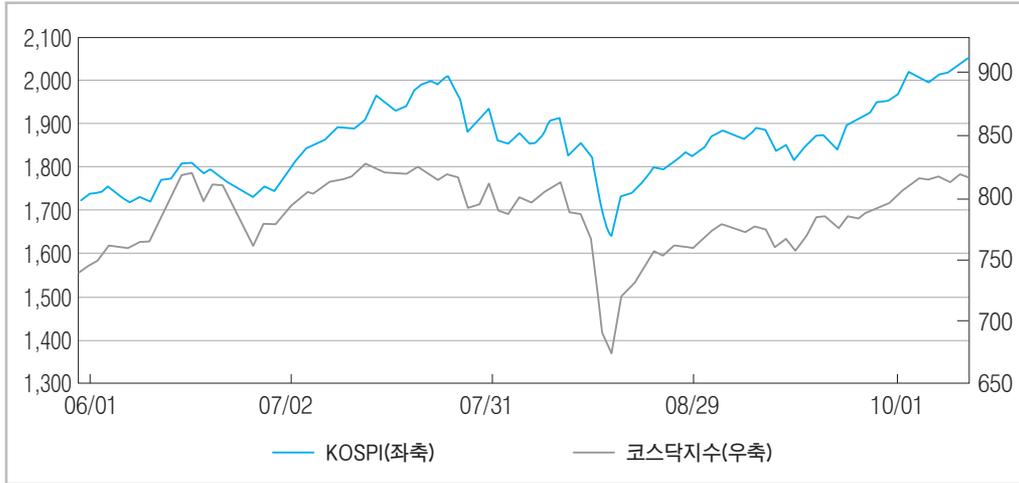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5) 주식시장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급락하였던 주가지수는 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뚜렷한 상승세 시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주가지수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로 반전
 - 코스피지수 2,000을 재회복하고(10월 2일) 기업실적 호조 및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에 힘입어 10월 9일 이후 연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코스피지수: 1,638.07(8월 17일) → 2,014.09(10월 2일) → 2,058.85(10월 11일)
 - 코스닥지수: 673.48(8월 17일) → 810.32(10월 2일) → 817.28(10월 11일)

<그림 1-1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2> 주식시장 주요 지표

(단위: 조 원, %, 말일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일
종합주가지수(KOSPI)	1,434.46	1,743.60	1,933.27	1,873.24	1,946.48	2058.85
거래대금(평균)	2.0	7.3	7.6	6.2	5.7	8.2
시가총액	704.6	863.5	961.2	932.1	974.0	1024.2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10.753	-3.536	-4.846	-8.704	-1.896	+0.437
코스닥지수(KOSDAQ)	606.15	778.69	811.52	755.13	794.56	817.28
거래대금(평균)	1.7	2.5	2.1	2.0	2.1	2.6
시가총액	72.1	100.4	107.0	103.5	106.0	110.1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0.454	+0.076	-0.031	-0.264	-0.002	-0.109
고객예탁금	8.4	14.0	14.6	12.8	12.7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5. 외환시장

(1) 원화 환율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8월 중 급등 반전했던 원/달러 환율은 8월 말을 정점으로 미 연준의 공격적 금융시장 안정책 등에 힘입어 하락기조로 복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8월 말 940원대를 유지
- 이후 원/달러 환율은 미국경기의 둔화 가능성 확대와 미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인하 등으로 10월 12일 현재 918.9원까지 하락
 - 9월 중순 들어 수출업체들의 이월 네고물량의 꾸준한 유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감소가 환율하락의 추가요인으로 작용
 - 현 원/달러 환율은 최근 수출보험공사가 발표한 중소기업들의 수출포기점인 899원40전에 근접하고 있음.
- 미 연준은 신용경색과 경기침체 가능성의 부각으로 인해 지난 8월 재할인율을 0.5% 인하한 데 이어 9월 연방기금금리를 연 5.25%에서 4.75%로 인하하기로 결정
 - FOMC는 금융 및 주택시장의 불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발표
 -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국경제가 심각한 침체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금년 중 추가적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

〈표 1-23〉 원/달러 환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환율	1,144.7	1,024.3	955.5	936.4	937.0	943.3	931.5	927.9	928.3	918.9	933.8	932.4
(전년평균 대비, %)	-4.0	-10.5	-6.7	1.1	1.2	1.9	0.6	0.2	0.3	-0.7	0.9	0.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8월 들어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확대 등으로 상승기조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일본 콜금리 동결 및 경기회복의 부진 등으로 9월 중 하락세로 반전
-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급증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4분기 실질GDP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본 콜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됨.
 - 2/4분기 실질GDP가 전기대비 -0.3%로 하향 수정되었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감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임.
 - 요사노 관방장관은 일본은행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 금융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발언(8월 31일)
- 원/유로 환율은 유럽의 견조한 경제 회복세와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기조 유지
 - 유로지역 실질GDP 성장률은 2/4분기 둔화세를 보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ECB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4%)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 트리셰 ECB 총재는 유로지역 물가상승위험이 증대될 경우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발언(9월 6일)

〈그림 1-14〉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자본 유출입 현황

■은행부문의 해외차입 증가 등으로 7월 중 순유입을 보이던 자본수지는 8월 들어 외국인의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6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임.

- 7월 중 균형양상을 보이던 직접투자수지는 8월 들어 13.7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
 - 7월 중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내국인의 해외투자 규모와 비슷해지면서 직접투자수지는 균형 양상을 보임.
 - 7월 중 11.5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였던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8월 들어 6.4억 달러의 순유출로 반전
- 같은 기간 증권투자수지는 지속적인 순유출을 시현함.
 - 7~8월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40.4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크게 감소
 - 또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자금의 회수 등으로 큰 폭의 순유출을 보임.

- 반면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46.9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임.
- 7~8월 중 기타투자수지는 7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순유입을 보임.
 - 8월 중 내국인의 대출이 크게 늘어 2004년 이후 최고를 기록
 -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자금 차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단기자금 차입으로 단기외채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07년 6월 말 현재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4.3%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 2007년 2/4분기 단기대외채무는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함.
-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원화절상 기대감과 기업의 선물환 매도 및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을 들 수 있음.
 - 단기외채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적인 원화 절상 추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
 -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증가는 스왑금리를 축소시켜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위험 차익거래를 확대시키고 있음.
 - 2007년 2/4분기에 외은지점들과 국내은행들의 단기대외채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77%와 30%의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2007년 6월 현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55%로 안정적 수준인 60%를 하회하고 있음.
 - 또한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인 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장기적 추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외은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도 크지 않은 상황임.
 - 더불어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내금융기관들의 중장기 해외채권의 발행개시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경로의 확대로 단기외채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는 환율하락의 가속화 및 대외국가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S&P는 재정위험이 확대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발언함.(10월 12일)
- 과도한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원화절상 기대심리 해소 및 외은지점 등을 통한 해외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

〈표 1-24〉 자본 유출입 추이¹⁾

(단위: 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연간	연간	1/4	2/4	6월	7월	8월
자본수지	76.0	47.6	186.2	53.1	64.4	-14.6	5.37	-6.04
직접투자수지	45.9	20.1	-34.8	-9.6	-28.7	-21.7	-0.03	-13.7
(내국인해외투자)	-46.6	-43.0	-71.3	-20.7	-29.4	-11.9	-11.5	-7.3
(외국인국내투자)	92.5	63.1	36.5	11.1	0.75	-9.8	11.5	-6.4
증권투자수지	86.2	-17.3	-225.4	-10.5	-0.27	-43.6	-69.3	-61.9
내국인증권투자	-74.0	-106.8	-225.8	-151.3	-119.6	-40.3	-40.4	-3.7
(주식)	-36.2	-36.9	-152.0	-132.3	-121.7	-47.2	-57.7	-12.7
(채권)	-37.7	-70.0	-73.8	-19	2.05	6.9	17.4	9.1
외국인증권투자	160.1	90.0	0.33	46.4	119.4	-3.4	-28.9	-58.3
(주식)	94.7	32.8	-84.2	-4.3	6.9	-21.3	-50.3	-105.1
(채권)	65.5	56.6	84.5	50.7	112.4	17.9	21.4	46.9
기타투자수지	-38.6	68.1	476.8	175.8	100.2	53.8	76.9	71.7
내국인기타투자	-81.4	-26.6	-87.6	-10.5	-38.4	-8.8	-18.1	-28.3
(대출)	-23.9	2.5	-9.4	-5.4	-12.5	-5.5	-7.1	-22.9
외국인기타투자	42.8	94.7	564.4	186.3	138.6	62.6	95.1	99.8
(차입)	-9.4	10.2	433.6	146.7	94.2	34.9	59.9	78.5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취득수지	-17.6	-23.4	-30.3	-8.1	-6.9	-2.1	-2.3	-2.1
자본이전수지	-17.5	-23.4	-29.7	-7.3	-6.8	-1.9	-2.3	-2.1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0.03	-0.005	-0.7	-0.885	-0.017	-0.108	0.013	-6.8

주: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해외경제

(1) 주요국 경제

■ 미국경제: 경기둔화 가능성 확대

-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크게 상향조정 되었으나 주택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의 여파로 최근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임.
 - 2/4분기 성장률이 4.0%로 상향조정됨.
 - 7월 중 실업률은 정부부문의 취업자수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2/4분기에 비해 0.1%p 증가
 - 7월 중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던 미국경제는 8월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 특히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 추세가 주춤하고 제조업부문의 고용부진이 확대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 *서비스부문의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1~7월 중 평균 14.5만 명에서 8~9월 중 14.3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제조업부문에서는 8~9월 중 -1.8만 명으로 1~7월간 평균인 -1.2만 명보다 증가함.
-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의류가격 및 교통비 등의 하락으로 상승세가 둔화됨.
- 더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요인인 주택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주택경기는 기존주택판매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착공호수가 '97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부진 심화, 2/4분기 Case-Shiller 지수도 전년동기 대비 3.2% 하락
 - 신용경색의 여파로 8월 중 기업어음 발행이 7월에 비해 크게 감소 (7월: 2조2천억 달러 → 2조4백억 달러)
 - 미 연준의 재할인율과 연방기금금리의 인하로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은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Greenspan 전 연준의장은 현 금융시장의 상황이 1998년 LTCM 사태 때와 비슷하다고 언급함.(9월 7일)

〈표 1-25〉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실질GDP ¹⁾	3.2	5.6	2.6	2.0	2.5	3.3	0.6	4.0	-	-	-
산업생산 ²⁾	3.2	5.0	4.2	5.1	3.5	4.0	0	0.3	0.5	0.2	-
소비자물가	3.4	0.6	1.2	3.3	1.9	3.2	2.4	2.7	2.4	2.0	-
실업률(%)	5.1	4.7	4.6	4.7	4.5	4.6	4.5	4.5	4.7	4.6	4.7
소비자신뢰지수 ³⁾	100.3	105.6	106.6	103.9	106.8	105.9	110	106.5	111.9	105.6	99.8
무역수지(억 달러)	-7,828	-2,079	-2,106	-2,186	-1,980	-8,360	-2,003	-1,944	-754	-697	-

주: 1) 전기대비 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대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 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 경기회복세 주춤

-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2%(연율)로 대폭 하향 수정됨.
 - 이는 GDP의 민간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고 대미수출의 감소로 7월 중 수출증가폭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
 - 그러나 이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단기적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음.
- 그러나 기업수익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GDP 성장률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
 - 단,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이 예상되면서 경제 회복기조 유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
 - 더불어 자민당의 선거 참패와 이로 인한 아베수상의 퇴진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7월 중 실업률은 3.6%로 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진한 임금증가로 인해 소비개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임.
 - 동 기간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됨.
- 7월 중 수출은 대미수출의 감소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
 - 상품수지 흑자는 8월22일 현재 6,712억 엔을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감소(-21.1%)를 기록함.

〈표 1-26〉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질GDP ¹⁾	1.9	1.3	0.5	5.5	2.2	3.3			-1.2			-	
광공업생산	1.1	4.7	5.6	5.9	4.8	4.4	3.1	2.0	2.2	3.8	1.1	3.2	4.3
소비자물가	-0.3	0.2	0.6	0.3	0.3	0.0	-0.2	-0.1	0.0	0.0	-0.2	-0.1	0.5
실업률(%)	4.4	4.1	4.1	4.0	4.1	4.0	4.0	4.0	3.8	3.8	3.7	3.6	3.8
수출	7.3	14.7	15.7	11.2	14.6	19.0	9.7	10.3	8.2	15.1	16.2	11.7	14.5

주: 1) 전기대비 연율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경제: 회복세 둔화

- 2007년 2/4분기 성장률(0.3%)은 전기(0.7%)에 비해 소폭 둔화
 - 이는 독일의 건설투자 부진과 각국의 재정적자 해소 노력이 겹쳐 빚어낸 현상
- 반면 독일의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면서 유로 경제는 견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특히 사상최저 수준의 실업률은 소비심리의 개선을 통한 민간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OECD와 같은 일련의 국제기구들은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투자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은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
- 단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영국의 모기지업체인 Northern Rock이 영란은행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1866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함.(9월 14일)
 - EU 집행위는 유로지역의 올해 실질GDP 성장률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음.

〈표 1 -27〉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3/4	4/4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질GDP	1.4	0.6	0.9	2.8	0.7			0.3	0.3	0.3	-
산업생산	1.3	0.1	0.5	4.0	-0.6	0.5	0.5	-1.1	0.8	-0.1	-
소비자물가 ¹⁾	2.2	2.1	1.8	2.2	1.8	1.8	1.9	1.9	1.9	1.9	1.8
실업률(%)	8.6	7.8	7.6	7.8	7.4	7.2	7.1	7.1	7.0	6.9	6.9
경기체감지수 ²⁾	98.4	108.6	110.3	107.3	109.2	109.7	111.2	111.0	111.9	111.7	111
수출 ¹⁾	7.4	7.8	11.6	11.1	12.1	9.9	6.6	11.1	6.7	9.0	-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긴축정책 가능성 확대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됨.
 - 컴퓨터 등의 수출 감소와 시멘트 등의 생산 둔화로 7월 중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됨.
 - 그러나 고정자산투자와 소비 및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

- 7월 중 무역수지 흑자는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한 244억 달러를 기록함.
 - 총통화는 금리와 기준율의 인상 등 중국당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의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이와 함께 7~8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함.(7월 5.6% → 8월 6.5%)
- 물가상승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7월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한 식료품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더불어 의료비 및 주거비 등도 2/4분기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과잉유동성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수요의 확대로 물가상승이 식료품 이외의 부문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중국 통화당국은 기준율과 금리인상 등 일련의 추가적 긴축정책을 발표했으나 시중은행의 대출여력과 시중 유동성 축소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표 I -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질GDP	9.9	10.3	11.3	10.6	10.4	10.7	11.1	11.9	11.9	11.9	-	-
산업생산	16.4	19.0	18.0	16.2	14.8	16.6	18.3	17.4	18.1	19.4	18.0	17.5
소비자물가	1.8	1.2	1.4	1.3	2.0	1.5	2.7	3.0	3.4	4.4	5.6	6.5
M2	17.6	18.9	18.5	17.7	16.9	16.9	17.3	17.1	16.7	17.1	18.5	18.1
고정자산투자 ¹⁾	27.2	29.8	31.3	28.2	24.5	24.5	25.3	25.5	25.9	26.7	26.6	26.7
무역수지(억 달러)	1,019	232	380	487	678	1,775	464	169	225	269	244	-

주: 1)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2007년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기조

- 올 상반기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가는 지속적인 중동정세 불안과 미국시장의 재고 감소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정제시설 가동차질, 그리고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전망 등과 맞물려 높은 상승세 유지
 - 8월 중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와 투기자금 유출 등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임.
 - 한편 OPEC은 9월 11일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원유수요 위축을 우려하여 11월부터 증산을 합의함.
 - 두바이유는 10월 8일 현재 79달러까지 상승
 - CRB 선물가격지수는 8월 세계경제 둔화 우려와 생산국들의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상승세로 반전
 - 금선물지수는 인도, 중국 등의 수요 증가와 생산국에서의 파업 등 공급차질이 달러화 약세와 맞물려 9월 큰 폭으로 증가

〈표 1-29〉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단위: 달러/배럴, 1967=100)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12월	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유가현물(Dubai)	53.16	56.48	58.23	65.01	63.48	66.31	69.55	67.92	73.32
CRB선물지수 ¹⁾	331.83	307.26	310.16	312.71	311.46	315.74	324.1	308.76	333.67
금선물	517	636.7	662.11	678.45	660.50	649.65	664.3	673.40	743.60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제Ⅱ장

국내경제전망(2007~2008년)

1. 대내외 여건
2.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 2007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회복세 및 신흥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4%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 뚜렷해진 둔화 징후
 - 올해 2/4분기 4.0%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기조를 보였으나, 주택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기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달러약세에 따른 수출 호전과 재정적자의 소폭 개선이 있으나 2008년 미국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 세계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상으로 2008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 2007년 중국경제는 기준을 인상 등 경기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하반기 추가 긴축정책이 예상되나 공산당 지도부 개편 및 올림픽 개최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그러나 수출억제정책과 일부 지역에서의 개인 해외증권 직접투자의 허용 등의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대외무역 역조현상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2008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와 겹쳐져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올해보다 큰 폭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내적으로도 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 당국의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이 예상됨.

-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완만한 둔화
 - 내수에 의한 자체적인 성장이 기업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7년 말에도 계속되나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그 성장폭은 제한적일 전망
 - 2008년에는 해외수요 감소와 과거 5년간 급증한 설비투자가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올해 보였던 회복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 유로지역경제, 경기회복세 둔화
 - 2007년에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회복세도 본격 궤도에 오름.
 -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
 - 더불어 지난 2년간 급증한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유럽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가능성이 존재함.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IMF	OECD ²⁾	IMF	OECD ²⁾	투자은행 ³⁾
세계성장률	5.4	5.2	2.7	4.8	2.7	-
미국	2.9	1.9	2.1	1.9	2.5	2.2
일본	2.2	2.0	2.4	1.7	2.1	1.8
유로	2.8	2.5	2.7	2.1	2.3	2.0
중국	11.1	11.5	10.4	10.0	10.4	10.4

주: 1) 2006은 IMF통계임.

2)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3) ABN Amro, Bank of America, Barclays capital, Citi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UBS Warburg, BNP Paribas의 9월 말 전망치를 평균한 수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7.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7.

- 국제유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 약세와 수급 불균형 등의 유가 상승 요인들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에는 70달러(두바이유 기준), 2008년에는 75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 신흥국들의 성장세 지속 및 달러 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아져 투자 및 투기수요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반면 공급은 2008년에도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불안 전망
 -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OPEC은 원유증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 원유 재고 감소와 수급차질 우려 증가
 - 이란 핵문제 및 이라크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불안 지속
-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수급의 불균형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내년 6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유가는 2008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할 전망
- 따라서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 70달러(두바이유 기준), 2008년 75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및 달러 약세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금리인상 기조를 보이던 각국 중앙은행들은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함.
- 미 연준은 지난 9월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4.75%로 0.5%p 인하했으며,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한 차례 추가 인하를 할 전망이다.
 - 최근 고용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 및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 한편, 미 연준은 최근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적다고 발표
-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5%에서 동결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행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에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0.5%에서 동결함.
 - 신용경색이 해소됨에 따라 금리인상 압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 정도의 콜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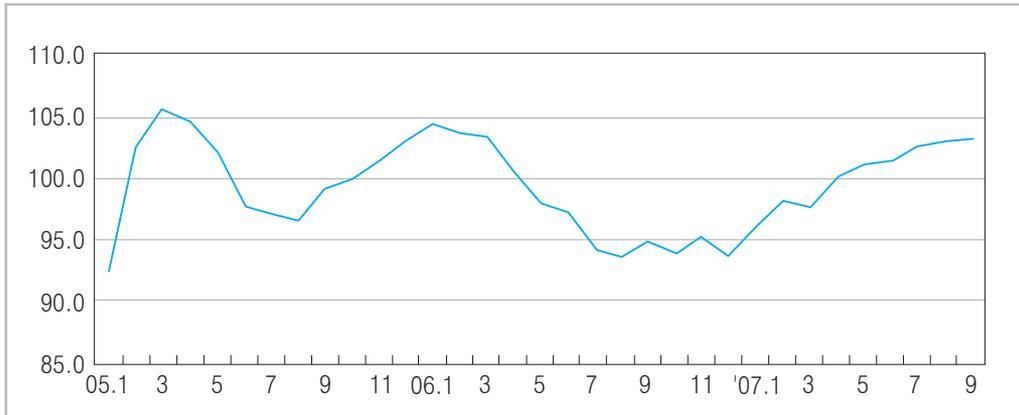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고, 자민당 선거참패 등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함.
 - 한편 엔화는 일본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금리 차이로 2008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ECB는 내년까지 정책금리를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ECB는 애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2007년 9월 정책금리를 4%에서 동결함.
 - 그러나 유로지역의 수출과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반면 최근 유로지역 경제가 둔화 기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유로지역의 주택경기 의 부진 가능성과 유로화 강세 및 미국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2008년까지 정책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함.
- 중국은 2007년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율을 12.5%(2007년 9월 현재)까지 끌어올렸으며,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기조는 향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1%로 8월의 6.5%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과도하게 높은 수준임.
 - 중국 위안화는 대외적 불균형에 따른 국제적인 위안화 절상압력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긴축정책의 필요성 증대로 2008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대내여건

■ 신정부의 경기활성화 추진기대로 소비심리 회복세 유지

- 9월 중 소비자기대지수는 103.2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고용안정,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남북정상회담 및 6자회담 타결에 등이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한 데 기인

〈그림 II-1〉 소비심리지수 추이



- 올 연말 17대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은 소비심리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과거 4차례의 대선 경험을 분석해 보면, 대선 전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상승국면이었던 경기가 대선으로 인해 하강국면으로 바뀌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없었음.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5월호 참조)
 - 이는 대선이 당해 연도 경기흐름을 변화시킬 정도가 아닌 경기 중립적인 변수임을 보여 줌.
-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전망으로 소비심리 회복세가 영향을 받겠지만 신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적극적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수준의 소비심리는 유지될 전망
 - 과거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했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카드활성화 등 내수진작책을 실시
 - 더욱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새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 지난해 북핵실험(10/9)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핵 관련 위험이 향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올 2월 13일 6자회담에서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후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의 폐쇄 등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음.
 - 올 9월 27~30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을 연내에 불능화하기로 합의
- 또한 10월 2~4일 중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지속

- 연말까지 콜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음.
 - 통화당국은 국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9월과 10월에는 동결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9월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 인하(5.25%에서 4.75%로 0.5%p 인하)로 한미 간 금리역전현상 발생(한국 콜금리 목표는 5.0%)함에 따라 연말까지는 통화당국이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높음.

-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의 5.8%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하지만 사회복지·보건(67조5천억 원, 10.0% 증가), 교육(35조7천억 원, 13.6% 증가), 국방(26조7천억 원, 9.0% 증가) 등의 분야에 비해 수송·교통·지역개발(18조9천억 원, 2.4% 증가) 농림·해양수산(16조5천억 원, 3.4% 증가) 산업·중소기업(12조6천억 원, 0.1% 증가) 등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율이 낮아 성장잠재력 제고에는 미흡하다는 평가

〈표 II-2〉 정부의 2008년 예산안

(단위: 조 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감률(%)
총지출	238.4	257.3	7.9
예산	165.5	182.8	10.4
기금	72.9	74.5	2.3
(사회보장지출)	(17.5)	(19.0)	(8.8)
부문별 지출			
교육	31.4	35.7	13.6
사회복지·보건	61.4	67.5	10.0
R&D	0.8	10.9	11.2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9	2.4
농림·해양수산	15.9	16.5	3.4
산업·중소기업	12.6	12.6	0.1
환경	4.0	4.4	10.0
국방비(일반회계)	24.5	26.7	9.0
통일·외교	2.4	2.6	7.3
문화·관광	2.9	3.1	7.8
공공질서·안전	10.9	11.6	6.8
균형발전	7.2	8.1	11.4

자료: 기획예산처

2.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 GDP 성장: 2007년 실질GDP 4.7% 성장

- 2007년 실질GDP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하여 연간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5.0%('06년 연간) → 4.7%('07년 연간): 4.5%(상반기), 4.8%(하반기)
- 2006년 대비 건설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수출 증가세의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07년 실질GDP는 4.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여력의 미흡한 확충여건으로 200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6년과 같은 수준인 4.2% 전망
 - 2006년 0.4%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2.1% 증가 전망
 - 2007년 상반기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 호조로 설비투자는 연간 8.7% 증가 전망
 - 2006년 12%를 상회하던 수출²⁾증가율은 2007년 10.0%로 둔화

■ 2008년 실질GDP 5.1% 성장 전망

- 2008년 실질GDP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설비투자 호조의 지속으로 연간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5.0%('06년 연간) → 4.7%('07년 연간) → 5.1%('08년 연간)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한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이 예상되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증가로 인해 2008년 실질GDP는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세제개편(안) 등에 의해 민간소비 여력이 다소 개선되어 2008년 민간 소비는 연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이하 실물경제부문에서 언급되는 수출은 국민계정의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출입.

- 2008년 민간 주택건설부문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부문 건설투자의 주도로 전체 건설투자는 3.2% 증가 전망
- 2008년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에 따라 2007년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의 대외여건으로 인해 증가율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9.0% 증가 전망
- 2007년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08년 수출증가세는 8.9%로 둔화될 전망

■ 민간소비: 2007년 민간소비 4.2% 증가

- 2007년 민간소비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하여 연간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
 - 4.2%('06년 연간) → 4.2%('07년 연간): 4.1%(상반기), 4.4%(하반기)
- 올해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2007년 2/4분기 실질GDP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상환 및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여력의 확충이 미흡
 - 청장년층 및 중년층의 취업자수 감소,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 큰 폭 증가 등 양적·질적 고용지표의 개선 미흡
 - 국내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 2008년 민간소비 4.6% 증가 전망

- 2008년 민간소비는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의해 연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4.2%('06년 연간) → 4.2%('07년 연간) → 4.6%('08년 연간)
-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예상되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초·중·고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출산·입양 소득

공제 신설 등으로 소비여력 확충 기대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대책도 소비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6년 하반기부터 기준선 100을 하회하던 소비자기대지수는 올해 2/4분기 이후 개선되어 기준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 호황과 고용 지표 개선 기대로 소비자심리 회복 지속 예상
- 그러나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민간소비 증가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표 II -3〉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추이¹⁾(추정)

(단위: 조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택담보대출잔액	214.5	214.5	214.5	214.5
만기일시상환	84.9	69.4	53.8	40.8
분할상환	129.6	145.1	160.7	173.7
거치기간 만료 분할상환대출	19.5	21.8	48.6	15.9
원리금 상환부담 ²⁾	13.7	14.4	15.6	16.7
만기일시상환	5.5	4.6	3.7	2.8
분할상환	8.2	9.8	11.9	13.8

주: 1)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만기도래 시 연장 또는 대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차주의 현금흐름 부담액 산정 시 이자지급분만 포함.

2)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0%, 분할상환대출은 만기 20년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된 것으로 전제(2006년 원리금 상환부담은 2006년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거치기간 분포를 기준으로 추산)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07. 4.

■ 건설투자: 2007년 건설투자 2.1% 증가

- 2007년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하여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4%('06년 연간) → 2.1%('07년 연간): 3.5%(상반기), 0.9%(하반기)
- 지난해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부문 증가세 둔화 가능성과 지속되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부진으로 하반기 건설투자는 0.8% 증가에 그쳐 연간 2.1% 증가 전망
 - 공공부문 국내건설기성(경상)이 8월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공공부문 건설투자의 증가세 둔화 가능성
 - 지방을 중심으로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 물량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 등에 의해 민간부문 주택건설의 회복은 기대난망

■ 2008년 건설투자 3.2% 증가 전망

- 2008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연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0.4%('06년 연간) → 2.1%('07년 연간) → 3.5%('08년 연간)
-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등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의 부진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인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인 기업도시는 무안, 무주, 원주, 충주

■ 설비투자: 2007년 설비투자 8.7% 성장

- 2007년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포함)는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하여 연간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7.8%('06년 연간) → 8.7%('07년 연간): 10.5%(상반기), 6.9%(하반기)
- 2007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했던 ATM 교체투자를 포함한 기계류의 증가세가 하반기에 둔화되면서 연간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3/4분기에 들어서면서 7월과 8월 통계청의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은 기계류부문의 부진으로 1%대로 크게 둔화

■ 2008년 설비투자 9.0% 증가 전망

- 2008년 설비투자는 2007년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인해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9.0% 증가 전망
 - 7.8%('06년 연간) → 8.7%('07년 연간) → 9.0%('08년 연간)
- 내년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2007년 3/4분기 이후 설비투자압력 증대에 의해 내년 설비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제한적 설비투자 증가세 전망
 - 내년 민간소비 소폭 증가: 4.2%('07년 연간) → 4.6%('08년 연간)
 - 3/4분기 이후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설비투자 압력이 기준치 8%p를 크게 상회하는 11.1%p(7월), 7.3%p(8월) 수준으로 증대
 - 내년 한 자릿수의 수출증가율 전망: 10.1%('07년 연간) → 8.9%('08년 연간)

〈표 II-4〉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p)

	2006년				2007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제조업생산증가율(A)	13.4	12.1	11.8	5.6	3.4	7.1	14.7	11.7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B)	4.6	4.0	3.2	2.1	1.5	2.7	3.6	4.4
설비투자조정압력(A-B)(%p)	8.7	8.1	8.6	3.4	2.0	4.4	11.1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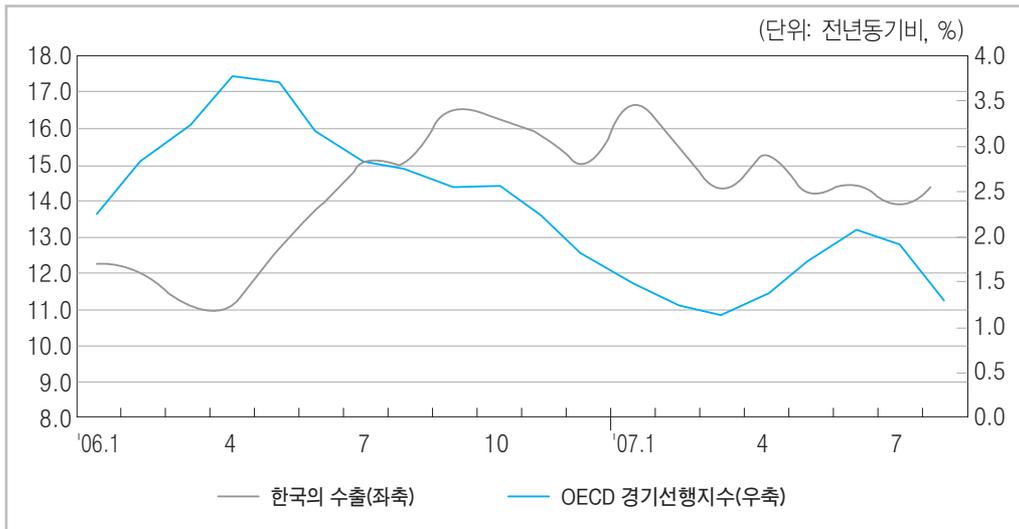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대외거래

■ 수출은 2007년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약 11%)을 유지할 전망

- 중국, 일본, 유로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견조한 성장세로 인해 대외수요기반이 양호
 - 미국경제도 미 연준의 적극적인 대처³⁾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OECD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우리의 수출증가율도 소폭 둔화되는 추세를 보일 전망

<그림 II-3> OECD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 2008년에도 수출증가율은 수출지역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3) 8월 17일 재할인율을 0.5%포인트(6.25% → 5.75%) 인하, 9월 18일 연방기금금리를 0.5%포인트(5.25% → 4.75%) 인하하는 동시에 재할인율 0.5%포인트(5.75% → 4.25%) 추가 인하

- 1996년 17%였던 대미수출비중은 2006년에는 13%로 감소한 반면 대중수출비중은 9%에서 21%, 대EU수출비중은 12%에서 15%로 증가하는 등 수출지역이 다변화됨.
 - 대미수출비중이 낮아지고 대중수출비중은 높아진 점에서는 같으나 대EU수출 비중이 감소 내지 정체한 여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
- 우리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 개선으로 원화절상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견조한 수출증가세 전망을 뒷받침함.
 - 수출시장 점유율은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 상승세로 반전

〈표 II -5〉 중국, 미국, EU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비중

(단위: %)

	1996년			2006년		
	대중국	대EU	대미국	대중국	대EU	대미국
중국	-	16	18	-	19	21
홍콩	34	15	21	47	14	15
인도	2	26	20	7	22	17
인도네시아	4	17	14	8	12	11
한국	9	12	17	21	15	13
말레이시아	2	14	18	7	13	19
필리핀	2	19	34	10	19	18
싱가포르	3	13	18	10	11	10
대만	1	14	23	23	12	14
태국	3	17	18	9	14	15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2007. 9. 10.

〈표 II -6〉 주요국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단위: %)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홍콩	싱가포르
1991	2.1	2.1	12.0	9.0	11.5	5.3	2.8	1.7
1996	2.6	2.9	11.8	7.8	9.7	4.9	2.4	2.4
2001	2.4	4.3	11.9	6.6	9.3	4.4	2.0	2.0
2006	2.8	8.1	8.6	5.4	9.3	3.5	2.3	2.3

자료: KDI, 『최근 우리나라 수출호조세 분석』, 2007. 10.

■ 단, 미국경제 회복지연, 중국의 거시경제 긴축기조, 달러약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질 전망

- 2008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경기는 주택경기 하락,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둔화될 전망
 - 주택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가 둔화될 전망
 - 미국의 경기둔화는 일본, EU지역, 중국 등의 대미수출이 감소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임.
 - 우리의 대중국수출의 상당 부분⁵⁾이 미국 등 제3국 수출으로의 우회수출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경기 둔화는 중국수출의 둔화를 통해서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은 2008년에도 인플레이션, 경기과열, 자산가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4) 2007년 8월 기존주택 판매는 5년 만에 최저 수준, 신규주택 건설은 1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의 주택경기의 위축이 가속

5) 2005년 회계연도의 중국 현지 법인(전체 13,224개 중 4.5%인 598개가 분석대상이며 투자잔액 기준으로는 57.8%)의 매입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40억 달러로 전체 우리나라 대중국수출의 약 23%를 차지.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 중 36.3%는 제3국으로의 수출(한국수출입은행, 『2005 회계연도 중국 및 미국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06. 12)

- 이로 인해 미·중 간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지고 중국의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중국수출의 둔화는 중국의 부품 및 투자재의 수입수요 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세 둔화의 한 요인이 될 전망
- 국제원자재 가격의 강세 지속도 교역조건 악화뿐 아니라 인플레이 방어를 위한 각국의 금리인상을 통해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요인
- 2007년 상반기 적자(-16.3억 달러)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하반기에는 흑자(45.6억 달러)를 보일 전망. 연간으로는 약 30억 달러 흑자
- 하반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수출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데다 서비스적자 요인이 상반기보다 크지 않은 데 기인
- 상반기에는 1~2월 중 방학을 이용한 해외연수, 3~4월 중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적자확대 요인이 있으나 하반기에는 7~8월 중 여름휴가 외에는 서비스수지가 악화될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2008년에는 경상수지가 1998년 404억 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우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수입증가율은 내수회복세, 원화절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에 이어 2008년에도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부족, 원화절상 등으로 해외 서비스 수요 증가하면서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할 전망
- 법률, 회계, 광고 등의 분야는 경쟁력 열위에 있고 여행,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내국인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 확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

(3) 물가

■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

- 1~9월 중 전년동기 대비 2.3%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4/4분기에는 2.5%로 소폭 상승하겠으나 하반기 전체로는 2.4%, 연간으로는 2.3%의 오름세에 그칠 전망
 - 4/4분기는 고유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국내경기 회복세 등 상승압력이 높으나 원화절상, 부동산가격의 제한적인 오름세 등으로 인해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하지만 2008년에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2007년 (2.3%)보다 높은 2.6%로 전망됨.

-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지속은 내년 물가에 중요한 상승압력이 될 전망
 - 국제유가가 원유도입단가 기준으로 8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 데다 9월에는 80달러까지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데다 세계경제가 급락하지 않는 한 고유가 국면은 지속될 전망
 -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수급불균형 문제⁶⁾에 달러약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른 원자재 등 실물자산 투자 증가가 가세하면서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
- 내수 경기회복세는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요인일 뿐 아니라 원가상승을 반영하는 데 용이한 환경⁷⁾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물가상승요인
 - 실제로 밀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제분업체는 지난 9월 밀가루 가격을 최고 15% 인상했음. 또한 유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도 가시권에 접근

6) 세계경제의 호조,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등으로 곡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가뭄 및 홍수로 인해 작황은 부진

7) 경기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기가 경기하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

(4) 시장금리

■ 2007년 하반기 시장금리는 평균 5.9%로 전망되며 2008년에도 금리상승 기조는 이어져 시장금리는 평균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3/4분기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는 평균 5.8%를 기록하였으며 현재의 금리상승 기조는 4/4분기에도 이어져 4/4분기에는 평균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 전체 평균은 약 5.9%로 전망됨.

- 2008년 국내외 실물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2008년 시장금리 평균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국내외 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편 내수 회복세도 가시화될 전망 이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은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해외경제의 경우 미국 및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중국 등 개도국의 고성장이 지속되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미국의 경우 2008년 성장률이 둔화되어 1% 후반~2%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세계경제는 4.8%(IMF 전망)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과 자금조달 경쟁 격화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성장세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현 수준의 정책금리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 압력이 지속된다면 시장불안이 해소되는 시점을 계기로 2008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

- 한편, 증권사 등으로 시중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권의

은행채 및 CD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저축성수신금리도 상승할 전망

- 은행채 금리: 4.90%('06년 12월 말) → 5.91%('07년 9월 말)
- CD금리: 4.04%('06년 12월 말) → 5.35%('07년 9월 말)

〈표 II-7〉 은행의 CD 및 은행채 수신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05년 1~9월	2006년 1~9월	2007년			
			1~9월	7월	8월	9월
CD	16.2	2.2	22.0	2.1	4.8	1.1
은행채	-2.2	27.9	23.5	1.3	2.4	3.8

자료: 한국은행

■ 채권시장의 수급여건 양호

- 수출증가세의 지속 및 내수경기의 회복세 등으로 기업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 회사채 발행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채 발행도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 전망: 302.0조 원('07년) → 318.8조 원('08년) → 335.3조 원('09년)
 -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사업을 위한 추가적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존재

■ 금리하락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손실규모가 확대되어 미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경우 금리는 하강 기조로 반전
 - 주식시장의 침체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면서 채권 수익률 하락
-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은 높지 않아 추가적 금리인하 여력이 있으며 실물경기도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연착륙(soft-landing)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5) 환율

■ 2008년 원/달러 환율은 2007년(약 930원)보다 소폭 낮은 920원대에서 등락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8월 신용경색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등으로 큰 폭 상승했으나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반기의 하락추세가 지속됨.
 - 원/달러 환율은 연초 930원대에서 10월 9일 현재 915.3원까지 하락함.
- 향후 원화 강세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원화 약세 요인이 점차 우세해짐에 따라 2008년 원/달러 환율은 91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
 - 또한 2008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고, 남북경협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이 원화강세의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올해 원화강세의 요인이었던 해외차입의 증가와 수출기업의 달러선물 매도는 2008년 상반기까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경기의 둔화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등은 원화 하락세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따라서 2008년 원/달러 환율은 91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 -8〉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분기	2분기	상반기	3분기	4분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5.0	4.0	5.0	4.5	4.7	5.0	4.8	4.7	5.1
(SA, 전기대비, %)		0.9	1.7	2.2	1.1	1.1	2.0		
민간소비	4.2	4.1	4.2	4.1	4.3	4.4	4.4	4.2	4.6
건설투자	-0.4	3.9	3.2	3.5	1.7	0.3	0.9	2.1	3.2
설비+무형고정자산	7.8	10.1	11.0	10.5	6.2	7.5	6.9	8.7	9.0
수출(재화+서비스)	12.4	11.0	10.7	10.9	8.8	10.1	9.5	10.1	8.9
수입(재화+서비스)	11.3	11.7	12.3	12.0	9.8	11.8	10.8	11.4	10.3
소비자물가	2.2	2.1	2.4	2.3	2.3	2.5	2.4	2.3	2.6
생산자물가	2.3	1.8	2.5	2.2	2.1	2.4	2.2	2.2	2.4
경상수지(억 달러)	60.9	-16.6	0.3	-16.3	10.4	35.1	45.6	29.3	-32.9
상품수지(억 달러)	292.1	60.4	69.7	130.1	78.9	93.5	172.4	302.5	274.0
수출 (억 달러, BOP 기준)	3,318.4	864.7	929.0	1,793.6	939.8	988.3	1,928.1	3,721.8	4,086.5
증가율%	14.8	14.1	13.1	13.6	10.2	11.5	10.9	12.2	9.8
수입 (억 달러, BOP 기준)	3,026.3	804.3	859.3	1,663.6	860.9	894.9	1,755.7	3,419.3	3,812.5
증가율%	18.4	14.0	15.0	14.5	8.9	14.3	11.6	13.0	11.5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1.2	-77.0	-69.4	-146.4	-68.5	-58.4	-126.8	-273.2	-306.8
환율(원/달러, 평균)	954.8	939.1	928.9	934.0	928.0	920.0	924.0	929.0	910.0
회사채수익률(3yrs, AA-)	5.2	5.3	5.5	5.4	5.8	5.9	5.8	5.6	6.1
실업률(%)	3.5	3.6	3.2	3.4	3.2	3.1	3.2	3.3	3.3

제3장

이슈분석

2008년 정책과제

1. 2008년의 특징
2. 새 정부 초기의 정책초점: 일자리 50만 개 창출
3. 정책과제

1. 2008년의 특징

■ 새 정부가 맞게 될 2008년 거시경제 사정은 비교적 양호할 전망

- 지난 두 정부는 출범 첫해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 출발
 - 국민의 정부는 취임 첫해인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7% 가까이 성장이 위축
 - 참여정부 역시 취임 첫해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을 경험
- 하지만 2008년 새 정부는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하에서 출범할 것으로 보임.
 - 참여정부 기간 동안 계속 위축된 내수기반과 수출 외끌이 경제성장 추세, 일자리 창출부진 등이 최근 다소 개선되는 모습

■ 경제활성화와 함께 성장잠재력 제고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전략적 아젠다를 연기하고 당장 불끄기에 급급했던 지난 두 정부와는 달리 양호한 초기여건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음.
 - 출범 첫해 일자리 창출 확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선, 일자리 창출 확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⁸⁾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함.
 - 그동안의 저조한 성장률과 누적된 디플레이션 갭으로 인한 체감경기 부진이 해소 되기 위해서는 5~6%대의 성장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함.

8) 성장률이 5%면 경제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경제활성화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 첫째, 잠재성장률이 5%라는 인식은 그동안 성장률 저조에 따른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둘째, 그동안 성장부진으로 잠재생산량 수준보다 낮았던 실제 생산량 수준과의 차이, 즉 누적된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

- 동시에 새 정부는 각종 정책 및 제도들의 정비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임.
 -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2. 새 정부 초기의 정책초점: 일자리 50만 개 창출

■ 참여정부 기간 중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극히 부진

- 참여정부 기간의 실물지표가 수출을 빼고는 역대정부 중 최하위
- 특히 취업자증가율(1.1%)은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취업자수가 6% 급락한 국민의 정부 기간 중 취업자증가율(1.0%)과 유사
 -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을 제외하면 김대중 정부기간 평균 취업자증가율은 2.7%로 참여정부(1.1%)보다 높음.

〈표 III-1〉 역대 정권별 주요 실물지표 추이

(단위: 증가율, %)

	연 도	실질GDP	내수	수출	취업자
전두환	1981	6.2	2.7	16.0	2.5
	1982	7.3	8.0	8.2	2.5
	1983	10.8	11.4	14.3	0.9
	1984	8.1	8.7	8.2	-0.5
	1985	6.8	6.5	4.2	3.7
	1986	10.6	9.5	26.8	3.6
	1987	11.1	10.9	21.8	5.5
	평균	8.7	8.2	14.2	2.6
노태우	1988	10.6	10.1	11.7	3.1
	1989	6.7	12.1	-4.0	4.1
	1990	9.2	14.9	4.5	3.0
	1991	9.4	10.9	11.1	3.1
	1992	5.9	3.9	12.2	1.9
	평균	8.4	10.4	7.1	3.1
김영삼	1993	6.1	6.7	12.2	1.2
	1994	8.5	10.0	16.3	3.2
	1995	9.2	11.2	24.4	2.9
	1996	7.0	7.4	12.2	2.2
	1997	4.7	1.0	21.6	1.7
	평균	7.1	7.3	17.3	2.2
김대중	1998	-6.9	-17.2	12.7	-6.0
	1999	9.5	10.4	14.6	1.8
	2000	8.5	9.8	19.1	4.3
	2001	3.8	3.1	-2.7	2.0
	2002	7.0	7.4	13.3	2.8
	평균	4.4 (7.2)**	2.7 (7.7)**	11.4 (11.1)**	1.0 (2.7)**
노무현	2003	3.1	0.6	15.6	-0.1
	2004	4.7	0.5	19.6	1.9
	2005	4.2	3.2	8.5	1.3
	2006	5.0	3.8	12.4	1.3
	2007*	4.6	4.5	10.0	1.3
	평균	4.3	2.5	13.2	1.1

주: 1) 전망치, ** 1998년 제외한 4개 연도 평균치

2) 내수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산 투자

■ 내수활성화 수반되어야 일자리 창출 가능

- 취업자 증가는 내수증가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임.
 - 1981~2006년 기간 중 취업자증가율과 성장률, 수출증가율, 내수증가율의 상관 계수⁹⁾ 중 내수증가율이 0.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 문제가 참여정부 기간 중의 극심한 내수부진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이는 일자리 창출부진의 최선의 해결방안이 내수활성화임을 시사

■ 일자리 50만 개 창출에 필요한 내수 증가율 추정

- 2008년 취업자 수 50만 명 증가는 2008년 취업자증가율이 2.1%가 되어야 함을 의미. 회귀분석¹⁰⁾ 결과 취업자증가율이 2.1%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부문은 약 6.5% 증가해야 함.
 - 취업자수(증가율, 연도): 23,446천 명(1.3%, 2007년), 23,946천 명(2.1%, 2008년)
 - 2.1%(취업자증가율, 2008년) = 0.42 + 0.26 * 6.5%(내수증가율, 2008년)
- 내수가 6.5% 증가하기 위한 소비와 투자의 가능한 조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2008년 성장률(수출입 등 다른 부분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은 6.2%가 됨.

9) (취업자증가율, 성장률) = -0.02, (취업자증가율, 내수증가율) = 0.79,
(취업자증가율, 수출증가율) = 0.06

10) $Y = 0.42 + 0.26X$, $t_{값} = 6.77$, $R^2 = 0.63$, Y: 취업자증가율, X: 내수증가율

〈표 III-2〉 50만 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내수증가율 조합

(단위: %)

	조합 1	조합 2	조합 3	조합 4
내수	6.5	6.5	6.5	6.5
민간소비	6.8	6.5	5.5	4.6 (baseline)
고정투자	5.9 (baseline)	6.5	8.1	9.7
GDP	6.2	6.2	6.2	6.2

주: 고정투자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산 투자

- 조합 1은 고정투자를 baseline 수준에 고정할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6.8%로 상승해야 함을 보여 줌.
 - 조합 4는 민간소비를 baseline 수준에 고정할 경우, 고정투자 증가율이 9.7%로 높아져야 함을 보여 줌.
- 역대 정부의 평균 내수증가율을 고려할 때 6%대 중반의 내수증가는 무리한 목표가 아님.
- 전두환(8.2%), 노태우(10.4%), 김영삼(7.3%), 김대중(7.7%, 1998년 제외)

11) 본원의 내년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증가율의 baseline 전망치는 각각 약 4.6%와 5.9%임.

12)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율도 가변적임.

3. 정책과제

■ 내수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

- 내수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및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경제구조 변화에 기인한 내수부진 요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통한 체질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다음에서는 제도 및 관행 개선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다음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규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

(1)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비용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고용회피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OECD는 고용보호법제의 강도로 평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OECD, Employment Outlook 2004)¹³⁾
- 일자리 보유자 보호에 맞추어졌던 정책초점이 이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로 옮겨져야 함.
 - 명목적 고용보호에서 고용확대를 통한 근로자 실질적 권익 증대로 정책목표가 바뀌어야 함.

13)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법적인 고용보호 강도를 측정하는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와는 뚜렷한 負(negative)의 상관관계를 보임. 즉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조치들이 강한 나라일수록 취업률은 낮다는 것인데 보호조치가 고용증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시사

- 비정규직 보호강화보다는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가 시도하는 ‘최초고용계약제도’와 같은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고용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2006년 63.8%인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 기준)을 일본 수준(70%)으로 높인다면 고용은 약 21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임.

(2) 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 확장은 걱정되는 수준
 - 최근 공무원 수, 공무원 인건비, 공기업 인력 및 예산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
 - 공공부문의 규모와 더불어 정부 조직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민간분야로의 역할이전을 지연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개입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고전적 자본시장의 구축효과(crowding out)보다도 더 복잡하고 부정적인 경로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
- 이런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제약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감세가 바람직한 수단
 -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활동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함. 법인세 인하로 자본수익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가 1%p 인하되면 실질GDP는 0.11~0.18%, 투자는 0.13~2.1%, 소비는 0.09% 증가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표양성화율을 높이는 한편 면세점을 인하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함.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면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근로의욕을 고취, 생산성 향상 도모할 수 있음. 소득세 1%p 인하 시 GDP는 약 0.235%, 고용은 0.079~0.14% 그리고 투자는 0.17~3.03% 증가

(3)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 출자총액제한 폐지
 - 출자의 목적은 신규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에 있는데,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이와 같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제약
 - 출자는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계열사로부터의 출자가 증가할 수록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¹⁴⁾가 있음.

-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쟁국으로 투자하도록 작용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통한 균형회복이 목표가 되어야 함.
 - 박현수 외(2004)¹⁵⁾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7.7조 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GDP 2.7% 추가성장이 기대된다고 예측한 바 있음.

- 전경련은 2006년 출자총액제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2년 내에 약 27원이 투자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 만약 2006년에 27조 원의 50%(13.5조 원의 실질가치는 약 11.8조 원)가 투자되었을 경우, 고정투자의 규모는 214.6조 원이 아닌 226.3조 원으로 증가하며 고정 투자 증가율은 3.2%에서 8.8%로 상승하였을 것임.
 - 승수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금액만큼 실질GDP가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2006년 성장률은 5.0%가 아닌 6.6%가 되었을 것임.

■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14) 김현중 · 이인권, 「계열사 출자 및 실물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5권 2호, 2005년 12월호, pp.87-118.

고동수 · 조현승 · 박민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8.

15) 박현수 외,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이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위탁연구 2004-02, 2004. 11.

-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
 -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 관행 종식
 - 명분에 상관없이 불법적, 폭력 시위는 엄격히 차단

- 사회 불안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각 분야의 안정성 확보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망과 공공 시설물
 - 서민 생활관련 범죄, 식료품 안전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1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2	7.1	16,413	3.6	5.1	2.4	5.7	-0.2
2006년	5.0	8.4	18,372	4.2	5.8	3.2	7.6	-0.4
2003년	1/4	3.8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3	4.2	-2.0	3.7	2.7	-4.6	7.7
	4/4	4.1	8.6	-2.0	3.8	4.3	-2.0	8.3
2004년	1/4	5.4	11.9	-1.3	3.7	2.4	-0.1	4.9
	2/4	5.7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8	-1.1	2.4	-3.3
2005년	1/4	2.9	5.4	1.6	3.9	0.5	3.8	-3.3
	2/4	3.4	5.1	3.7	4.8	2.1	3.1	1.1
	3/4	4.8	7.5	4.5	6.0	2.2	5.5	-1.1
	4/4	5.5	10.1	4.8	5.4	4.3	10.8	0.4
2006년	1/4	6.3	9.9	5.2	5.4	3.5	7.0	0.2
	2/4	5.1	9.4	4.1	5.2	0.1	7.2	-5.0
	3/4	4.8	8.7	4.0	5.8	4.6	11.1	-0.1
	4/4	4.0	5.7	3.7	6.8	4.5	5.3	3.2
2007년	1/4	4.0	3.9	4.1	5.6	7.0	10.8	3.9
	2/4	4.9	5.9	4.1	5.8	6.8	12.1	3.2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5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7	14.4	3,093.8	18.3	292.1	60.9	2,389.6	929.6
2005년 7월	232.4	10.6	215.1	17.0	30.5	12.4	2,056.8	1,028.3
8월	233.4	17.9	220.0	21.4	14.7	-5.3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7.1	14.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4.8	28.3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9	20.6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6.7	2.8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30.9	18.7	14.8	0.9	2,169.3	971.0
2월	237.9	16.6	235.1	27.8	8.4	-7.8	2,159.5	969.0
3월	268.4	12.1	259.5	13.9	29.1	-4.3	2,173.4	975.9
4월	255.9	11.9	244.9	15.3	18.8	-16.1	2,228.9	945.7
5월	279.3	20.8	262.1	23.9	28.2	13.6	2,246.9	947.4
6월	279.5	17.9	260.2	22.2	27.1	9.4	2,243.6	960.3
7월	257.7	10.9	255.5	18.8	16.2	-3.9	2,257.2	953.1
8월	272.9	16.9	270.3	22.9	14.4	-6.4	2,270.2	959.6
9월	296.5	20.9	276.4	21.6	31.7	14.1	2,282.2	945.2
10월	280.2	10.5	256.2	13.1	26.9	17.6	2,294.6	944.2
11월	306.0	18.5	267.7	12.2	57.1	42.4	2,342.6	929.9
12월	287.8	12.3	275.2	13.8	19.5	1.5	2,389.6	929.6
2007년 1월	280.9	20.8	275.9	19.5	12.9	-4.3	2,402.3	940.9
2월	262.3	10.3	254.1	8.1	23.9	4.0	2,428.1	938.3
3월	303.9	13.2	292.7	12.8	23.6	-16.4	2,439.2	940.3
4월	299.5	17.0	295.3	20.6	15.2	-20.8	2,472.6	929.4
5월	310.5	11.2	297.7	13.6	22.4	8.4	2,507.4	929.9
6월	320.0	14.5	284.5	9.3	32.1	12.7	2,507.0	926.8
7월	302.3	17.3	292.0	14.3	31.3	16.4	2,548.4	923.2
8월	311.0	14.0	296.7	9.8	29.4	6.1	2,553.0	939.9
9월	295.5	-0.4	270.6	-2.1			2,572.9	920.7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통화 ³⁾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3년	2.2(3.1)	3.5(3.4)	3.6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3	832.9
2005년	2.2(1.7)	2.8(2.6)	3.7	7.8	6.9	7.0	4.68	1,073.6
2006년	1.8	2.5	3.5	5.6	8.3	7.9	5.17	1,352.2
2005년 6월	1.6(0.6)	2.8(1.7)	3.6(3.8)	11.0	7.4	7.2	4.18	991.3
7월	2.0(1.4)	2.6(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6	7.7	7.6	4.75	1101.8
9월	1.6(2.2)	2.5(2.9)	3.6(3.9)	5.6	6.5	6.9	4.92	1171.0
10월	1.6(2.4)	2.3(2.7)	3.6(3.8)	10.0	6.5	6.9	5.20	1190.9
11월	1.1(1.9)	2.5(2.3)	3.3(3.6)	6.7	6.6	7.2	5.50	1253.3
12월	1.7(1.7)	2.6(2.6)	3.5(3.5)	0.7	7.0	7.3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2(0.6)	3.7(3.4)	24.1	7.3	7.2	5.50	1379.3
2월	1.7(0.6)	2.0(0.8)	4.1(3.5)	-11.8	7.2	7.4	5.33	1341.7
3월	1.4(0.7)	2.0(1.4)	3.9(3.5)	5.7	6.6	7.0	5.30	1331.7
4월	1.5(1.5)	2.0(1.5)	3.5(3.5)	4.1	6.8	7.4	5.24	1415.9
5월	2.6(2.1)	2.3(1.7)	3.2(3.4)	8.1	7.1	7.6	5.05	1388.8
6월	3.2(2.1)	2.4(1.5)	3.4(3.5)	3.4	7.7	7.3	5.17	1249.2
7월	2.8(2.5)	2.4(1.9)	3.4(3.5)	5.9	7.7	7.3	5.18	1278.0
8월	3.4(3.4)	2.7(2.5)	3.4(3.5)	5.3	7.5	7.4	5.10	1316.1
9월	3.1(3.6)	2.5(2.8)	3.2(3.4)	-0.2	8.9	7.9	5.02	1356.5
10월	1.9(2.6)	2.2(2.3)	3.3(3.4)	13.1	10.1	8.7	4.93	1354.0
11월	1.9(2.1)	2.1(1.8)	3.2(3.4)	6.1	11.1	9.4	5.05	1403.9
12월	2.2(2.2)	2.1(2.1)	3.3(3.3)	6.9	11.4	9.6	5.18	1418.8
2007년 1월	1.5(0.0)	1.7(0.2)	3.6(3.3)	-13.5	11.3	9.8	5.32	1379.3
2월	1.7(0.2)	2.2(0.9)	3.7(3.2)	28.6	11.5	9.9	5.28	1434.9
3월	2.2(0.7)	2.2(1.5)	3.5(3.2)	6.4	11.5	10.2	5.20	1431.6
4월	2.5(1.8)	2.5(1.9)	3.4(3.3)	7.6	11.1	10.1	5.34	1517.1
5월	2.5(2.4)	2.3(1.9)	3.2(3.4)	6.1	10.9	10.1	5.49	1614.9
6월	2.7(2.6)	2.5(1.9)	3.2(3.3)	6.5	10.9	10.4	5.64	1754.3
7월	2.4(2.8)	2.5(2.3)	3.2(3.4)	10.0	10.9	10.0	5.75	1911.6
8월	1.7(2.8)	2.0(2.4)	3.1(3.2)		11.4	10.3	5.70	1815.0
9월	2.1(3.6)	2.3(3.0)					5.85	1879.0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3년	5.2	78.3	-0.8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2	80.3	-0.4	-1.4	6.8	3.7	-3.7	11.1	4.9	14.8
2005년	6.3	79.7	2.9	2.1	1.5	6.3	7.4	4.1	-3.7	7.5
2006년	10.1	81.1	4.2	4.9	14.2	7.4	9.0	3.7	1.9	4.9
2005년 6월	3.7	80.0	3.2	3.8	-12.2	1.7	35.4	8.6	2.6	11.4
7월	7.0	80.6	3.6	4.1	26.2	11.1	4.3	2.8	-4.2	5.7
8월	6.8	79.8	5.6	6.3	18.3	1.4	16.2	2.8	-12.1	9.4
9월	7.6	79.2	3.8	4.8	0.1	0.2	23.7	0.8	-11.1	6.9
10월	8.0	79.2	2.5	4.9	0.7	7.2	-36.5	1.8	-4.8	4.2
11월	11.8	81.3	5.8	8.1	11.7	13.0	0.8	10.0	-4.4	16.5
12월	11.3	79.9	5.6	8.7	42.8	21.7	-18.6	4.5	1.3	4.5
2006년 1월	7.7	83.1	4.5	3.0	-2.3	1.5	10.9	0.6	-12.5	6.5
2월	21.4	80.9	3.3	12.4	37.5	4.7	29.0	8.0	-13.5	16.6
3월	10.7	81.3	4.2	5.9	-0.6	11.7	-34.1	4.3	-9.6	10.5
4월	10.7	79.3	4.2	4.7	15.3	13.9	-17.7	0.2	-6.4	3.4
5월	12.6	80.9	5.0	6.8	12.3	5.7	-21.7	-0.8	-5.5	1.1
6월	11.2	81.9	4.3	5.5	35.1	0.7	-6.8	-0.2	-5.6	2.3
7월	4.9	76.7	0.4	-1.9	-2.4	3.9	6.8	-2.4	-2.0	-1.4
8월	11.7	81.2	4.3	3.3	15.0	14.4	15.0	1.7	8.4	0.5
9월	17.6	84.0	8.4	14.2	33.0	17.7	98.5	14.4	19.1	12.1
10월	5.5	81.9	3.4	0.3	34.2	5.6	-0.2	6.1	18.7	2.2
11월	7.1	81.6	4.8	4.4	10.1	7.8	44.9	5.6	10.1	4.7
12월	3.0	80.5	3.8	1.9	-4.5	2.3	29.8	6.3	10.4	5.0
2007년 1월	7.5	81.4	5.1	6.4	24.9	15.4	9.7	10.5	14.1	9.3
2월	-0.6	82.0	7.2	4.0	17.1	12.8	40.1	8.3	25.9	2.3
3월	3.1	81.4	3.7	3.2	6.4	7.0	32.0	2.0	17.3	-4.1
4월	6.8	82.3	4.5	6.0	0.7	15.7	48.9	6.1	7.4	3.2
5월	6.7	83.3	4.6	6.2	13.0	11.4	5.2	5.4	15.1	1.0
6월	7.6	82.7	4.2	2.1	1.1	9.2	28.8	4.2	10.9	0.5
7월	14.3	83.1	7.7	10.4	32.1	1.0	-14.9	12.3	13.8	9.8
8월	11.2	83.7	4.5	5.5	2.9	1.7	13.4	5.5	-0.3	6.4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7년 10월 25일

1판1쇄 발행/2007년 10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중석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